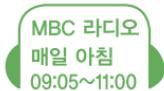


여성스데이

양희은·서경석입니다

5월
2023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거래고객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반월유통단지지점 거래고객
(주)기프트원 원용길 대표

contents 2023년 5월호 여성시대 신춘편지소



- | | |
|-------------------------------------|----------------------------|
| 04 신춘편지소 시상식 | 110 입선 |
| 08 신춘편지소 심사평 | 56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다! |
| 최우수상 | 62 그 아이 '봄' |
| 16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다 | 71 옹이가 된 3년 |
| 우수상 | 81 아들의 봄날 |
| 21 150센티미터 그 아이 | 91 하늘에서 보낸 그 아이의 문자 |
| 26 할아버지와 나의 3년 | 103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
| 가작 | 경석이가 또 무모한 도전을
하려 합니다 |
| 33 멀리서 온 '그 아이' | 106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
| 40 막내 '그 아이' | (주)태강기업 임현택 대표 |
| 50 빨간 원피스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 110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
| | (주)기프트원 원용길 대표 |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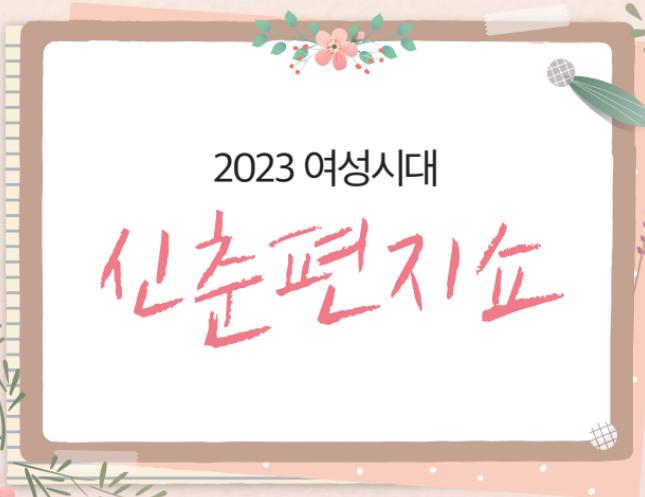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5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안정민, 이지안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증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풀)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여성시대의 봄은 신춘편지쇼로 더욱 특별합니다.

해마다 열리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올해의 글제는 '3년'과 '그 아이'였습니다.

전국 각지 해외에서 도착한 응모작은 2,900여 통이나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스물한 편의 수상작**이 가려졌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

우수상에는 상금 각 300만 원과 상패,

가작에는 상금 각 200만 원과 상패,

입선에는 상금 각 100만 원과 상패,

장려상에는 백화점 상품권 각 3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2023년 봄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영광의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박주아 님



우수상 박혜인 님



우수상 박정훈 님



가작 주경희 님



가작 유수현 님



가작 천성현 님



2023 신춘편지쇼

심사평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시인 김용택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의 <2023 신춘편지쇼>에 접수된 2,900여 통의 편지 중에 예심을 거쳐 저에게 보내온 편지는 45편이었습니다. 45편의 글을 읽어 가면서 어떤 글이 잘 쓰고 어떤 내용이 좋고를 떠나 모든 글의 내용이 하나 같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프고 또 따뜻하고 행복하였습니다. 때로 주먹이 쥐어지며 힘이 쌈솟기도 했습니다. 삶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응모된 글들은 누구나 다 겪을 것을 겪으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다큐'였습니다. 하나 같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 절절한 사연에 접수를 준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에 접수를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글은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만큼의 감동을 안길 수 있느냐는 글은 쓰는 솜씨나 기술보다는 진솔한 마음의 표현이 먼저일 것입니다. 글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글은 꾸밈없는 마음

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사람 마음으로 전달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동은 그 어떤 것이 진심이고 진실이고 진정일 때만 가능합니다.

45편의 편지들을 읽고 마지막까지 내 손에 들린 글 두 편이 있었습니다. 박주아 씨의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다'와 주경희 씨의 '멀리서 온 그 아이'였습니다. 두 분이 쓴 글 내용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구절절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지 하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 같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며 가슴 졸이게 하는 것 같이 생생했습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는 '국민 라디오 프로'입니다. '국민'이라는 거창한 말이 어떤 사람 이름이나 어떤 명칭 앞에 붙는 것은 국민 모두가 그것을 국민의 것으로 생각할 때 붙여지는 명예로운 말입니다. 수긍과 긍정의 힘이 우리들의 일상을 깊게 울려 착하고 선한 쪽으로 국민의 마음을 바꾸어 돌려놓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의 이름 앞에 국민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이번 <2023년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의 주제는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 해답을 찾아가게 하는 '그 아이'와 '3년'이었습니다.

2023 신춘편지쇼

심사평

마음을 울리는 힘

아동청소년문학 작가 이글이

우리는 종종 삶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 신춘편지쇼 본심에 오른 45편의 사연 속 삶들은 그 어떤 영화나 문학작품 못지않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아마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진정성 때문일 것이다.

<2023년 신춘편지쇼>의 글제는 ‘그 아이’와 ‘3년’이었다. ‘그 아이’가 시간을 뛰어넘는 보편성 있는 글제라면 ‘3년’은 우리 인류가 겪은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시기를 염두에 둔 상징성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녀, 부모, 다른 가족이나 입양, 첫사랑 등 가슴속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그 아이’ 편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울컥했다. ‘3년’을 주제로 한 편지 또한 팬데믹 기간과 연관된 사연뿐 아니라 인생의 3년으로 확장한 이야기들 덕분에 압축한 한 인간의 생애를 대하는 듯 감동적이었다.

각기 다른 글제라고 하더라도 사연들의 내용은 ‘인간애’라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결국 서로에게 내민 손에서 시작된다.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해, 연민, 배려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글들을 평가한다는 게 한없이 곤혹스러웠다.

심사를 위해 <신춘편지쇼>에 응모한 ‘편지’는 혼자 쓰고 읽는 일기 가 아니라 수신인, 즉 청취자가 있는 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개인 간의 편지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신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내용의 구성에 신경을 쓴다.

비록 편지의 순위를 나눴지만 응모하신 분들이 겪은 삶에는 감히 점수를 매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모든 분들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2023 신춘편지쇼

심사평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영화감독 정주리

10여 년 전 자료조사 차 전남의 한 도시에 갔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라디오에서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의 한 사연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나도 그리고 기사님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모르는 이의 차를 타고 가며 함께 울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3년’과 ‘그 아이’라는 글제를 봤을 때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나… 좀 막연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편 한 편 마음으로 꾹꾹 눌러쓴 글들을 읽으며 10년 전의 그 기억이 또렷해지고 벅차올랐습니다.

글을 보낸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난했던 여정이 눈에 선하도록 펼쳐지고 끝내는 또 나를 울렸습니다. 대부분은 고통스런 세월을 견뎌낸 지금을, 때로는 여전한 그 고통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폭로에 그치지 않고 그 험한 시간이 어떻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주위와 타인을 바라보는 남다른 눈을 가지게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극한 감동을 준 몇몇 글들을 보며 우

리가 결국엔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되새깁니다.

백혈병으로 이제 막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함께 투병하던 소녀가 그의 죽음을 모르고 아이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장하여 잘 있다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 나이에 낳은 아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시킨 엄마가 아이를 낳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만나 그의 아 이를 정성을 다해 키우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삶이 주는 냉혹한 고통은 우리를 한없이 작고 가라앉게 하지만 그 암흑의 심연에 다녀온 이들은 아주 미약한 빛의 고마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고 단번에 이해합니다. 여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0여 년 전의 그 봄 한때처럼 꽉 찬 마음으로 똑똑 흐르던 눈물을 닦고 심호흡 크게 한 번 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2023 신춘편지쇼

심사평

우리의 봄

여성시대 진행자 양희은

주말 이를 동안 마치 45편의 단편영화를 한꺼번에 본 듯했다. 하루 꼬박 앓아누워 있었다. 쓸쓸하고도 외로운 파도가 나에게 휘몰아쳤다.

‘3년’이란 세월도 보통 아닌 시간이고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아이’의 기억도 각별했고, 무엇보다도 용기와 마음과 시간을 내어 이야기 써서 보낸 당당이들 대단들 하셨다.

억울하고 속상한 얘기 털어내신 후 속은 편해지셨는지? 더 각별해 지셨는지? 용서는 되셨는지? 뒷얘기 또한 궁금하다. 우리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2023 신춘편지소

심사평

8년 전, 한 아이

여성시대 진행자 서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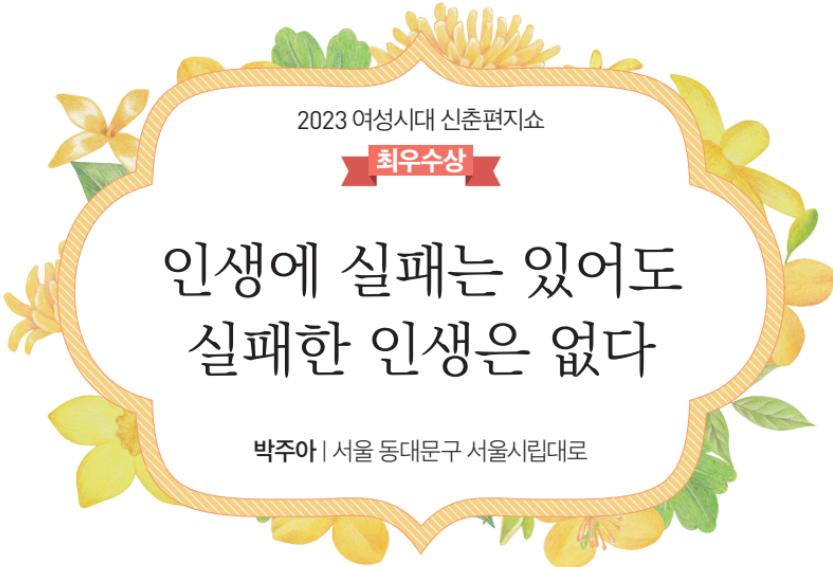
8년 전, 한 아이가 여성시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국의 스승님들과 양희은 교관님으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삼시세끼, 삼세판, 삼고초려 등등 '3'이란 숫자는 우리에게 참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번 봄 글 잔치에 도착한 '3' 이야기들은 느낌이 다르네요. 너무 아프고 깊고 슬프고 따뜻하고….

당당이 여러분, 어둡고 길었던 코로나 3년을 잘 헤쳐 나오셨습니다. 이젠 밝고 희망 가득한 일들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라는 아이, 참 많이 부족한데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양이 덜 된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네요. 김미경 강사 말에 의하면, 50세는 인생 시계 중 낮 12시 지난 거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격 만들어 놓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나중에 꼭 받아주세요.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최우수상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다

박주아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귀**’ 하의 탁월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불합격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가장 많이 마주한 한마디입니다. 코로나19
3년, 정말 고생 많으셨을 의료진 선생님들,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은 자
영업자 사장님들, 정말 많은 사람에게 힘들었던 3년이지만 저처럼 취
업준비생 청년들에게도 참 지난한 3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재수
와 학비 마련을 위한 휴학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들은 대학을 한
번 더 다녔을 나이 27살에 졸업한 저는 가뜩이나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어, 이 회사 작년에 신입사원 되게 많이 뽑았었는데 왜 공고가 안
뜨지?’

코로나 때문에 그 전년과 비교해도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들이 확

줄었었거든요. 저는 수십 개의 원서를 냈지만 단 한 곳에서만 채용연 계형 인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턴 2개월의 근무를 평가하고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회사였습니다. 인턴 2개월을 마치고 또 최종 정 규직 전환 심사 2개월을 기다리고 제가 받은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는데 이런 채용 가뭄 시기에 서류 지원부터 필기시험, 3번의 면접을 거쳐 2개월의 인턴 생활까지 총 10개월의 결과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어 허무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했을까? 사수 평가가 별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떨어졌다는 결과만 있을 뿐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에 빠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새 저는 한 살을 더 먹었고 코로나는 더 심해졌고 조바심은 더 심해졌으니까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채용 공고가 뜬 다른 회사에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곳에서 떨어졌고 한 곳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 10개월의 전형의 끝은 탈락이었습니다. 마지막 인턴 전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저는 제게 매우 실망했고 그때부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저에겐 유난히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허기코모리’라고 부르는 고립 청년. 어느새 저는 저를 고립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워 SNS는 모두 탈퇴하고 연락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5평 남짓한 제 자취방 불도 켜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걱정하며 올라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 속상하실까 봐 절대 오지 말라고 메시지만 보내고요.



<공부에 방해되니까 연락하지 마. 오지도 말고.>

이런 제 일방적인 통보에도 엄마와 아빠는 알겠다고 그저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문자만 매일 보내실 뿐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면서 매일을 보낼까. 저도 제가 고립되기 전엔 궁금했습니다. 하루의 긴 시간을 그 사람들은 방에서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잘만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생각만 머리를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걸 잘못해서 떨어졌나? 아니다 이거였나? 이제 어떡하지? 다시 해도 또 떨어지겠지? 평생 이렇게 실패만 하면 어떡하지? 이미 내 인생은 실패했어…’

수많은 자책 속에 생각의 끝은 결국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며칠에 한 번 컵라면이나 하나 먹고 잠에 들거나 또 자책에 빠지며 밑을 수 없게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삐삐삐삐 띠리링. 방의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엄마 왔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제 방문을 연 엄마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떤 마음이고 상태일지 대충은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는 저의 두 번째 인턴 탈락 때부터 당장 고향 집으로 애를 데리고 오자고 했지만 엄마가 기다려보자고 하셨고 그런데 그때쯤엔 제가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자 불안한 마음에 오신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문밖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불조차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실패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평생을 나를 키우려 헌신한 엄마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나오라고 할 줄 알았던 엄마는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나와도 돼. 엄마는 그냥 너 잘 있나 보러 왔어. 엄마 여기 있어.”

그 순간 몇 달 동안 하도 울어서 더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눈물이 펑펑 터졌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연이은 실패에 저도 저를 외면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언제나처럼 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나 어떡해… 내 인생 망했어… 나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꺽꺽 울며 엄마에게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더 평생 내가 본 엄마의 모습 중 가장 많이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다독이며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말씀도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주아야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어.”

왜 나는 두 번의 실패로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게 미안할 만큼 엄마의 말 한마디와 손길 한 번은 지난 2년의 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저는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물기가 마른 싱크대 아래에서 햇반을 꺼내고 엄마가 바리바리 싸 온 보따리 속 봄동 김치, 전복장, 소고기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차, 2022년 1년 동안 저는 또 수많은 탈락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앞둔 2023년의 저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 2년 때와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탈락을 겪어도 제 인생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겪어도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요.

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엄마와 껴안고 엉엉 울었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회사 한 곳의 서류를 쓰다 엄마가 여성시대 애청자신데 신춘편지소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엄마에게 이 편지가 닿을 수 있을까 해 투박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최종 합격 소식과 함께 엄마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우수상

150센티미터 그 아이

박혜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우리 집에는 키 150센티인 아이 키 어른이 계신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창문 밖에서 나를 보며 손 흔들던 그를 보고 처음 보는 짹꿍이라는 아이가 뻔히 알면서 나를 놀리듯 “저 애는 누구야?”라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는 가까이서 보면 그냥 작디작은 어른인데 멀리서 보면 그냥 아 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짹꿍에게 ‘저 아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뱉은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을 들킨 것처럼 어린 마음에 얼버무리며 딴짓을 했다.

참 철없게도 나는 친구들의 아버지들과 키 차이가 많이 났던 그를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내가 키 작은 아버지에 대해 직접 부끄러움을 표현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에게는 허접하고 불편해 보이는 키높이 구

두가 한 켤레 있었는데 그 신발을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 날이나 나랑 외출할 때는 꼭 신으셨다. 어쩌면 이 투박하고 불편한 구두를 신으셨던 것이 철없는 나를 위한 배려는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말씀하실 때 “참 많이 굶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한창 커야 할 시기에 제대로 못 드셔서 저렇게 못 크셨나 싶기도 하다.

그는 주민등록상은 52년생인데 실제는 53년생이시란다. 보통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문제인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태어날 때쯤 세상을 떠나 버린 어린 형의 출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한다.

“남의 집에 얹혀살며 일을 했던 너희 할부지랑 할매는 글을 모르셨기에 사망신고, 출생신고까지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힘드셨거나 아니면 대신 신고를 해줘야 할 동네 어르신이 너무 바쁘셨나 보다. 덕분에 남보다 동안이라는 소리는 듣는다”라며 “허허허”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그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된 증명서 하나 못 받은 가엾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가끔은 듣다.

내가 어릴 때 매월 10일은 아버지의 봉급날이었는데 그날은 우리 집 불고기 잔칫날이다. 그날 오후쯤이면 집에서 부업을 하던 엄마는 하던 일을 접어두고 집 근처 식육점에 가셔서 돼지고기를 사 와 내가 좋아하는 당면과 함께 간장에 재어놓고는 늘 나를 불러 뚜껑을 열어 먹음직스럽게 재여 있는 고기를 보여주셨고, 저녁 으스름해질 때쯤이면 여느 날과 다르게 바쁜 발소리를 내며 들어오시던 아버지를 나는 다른 날보다 더 반겼다.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소확행을 우리 가족은 그때부터 조금씩 누렸던 것 같다. 물론 아버지의 ‘보증’이라는 문제가 오기 이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예전 직장 상사의 보증을 섰던 일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직장 상사는 본인에게 야간특근도 하게 해주고,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와준 분이며 무엇보다 편찮은 노모를 어렵게 모시는 분이라 보증을 거절할 수가 없으셨단다. 하물며 그렇게 반듯한 분이 몇 달도 안 되어 야반도주하듯 사라질 분도 절대 아니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고마운 상사분의 은행 빚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되었으며 그해 아버지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자가 되셨다.

나는 어릴 때 전화위복이란 사자성어를 꽤 믿고 좋아해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 괜히 이 사자성어를 던져주며 위로했는데 정작 그때의 우리 집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맞았다는 생각도 듈다.

꽤 오랜 시간 아버지는 그 상사분을 찾으려 지방에 다니셨고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났지만 아버지의 손에는 그분께 받은 5만 원이 다였다. 원래 6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들 주라고 음료수를 사 드리고 왔단다.

5만 원을 손에 쥐고 집에 들어오신 그날 아버지는 다시는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각서를 자발적으로 엄마께 쓰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바로 닭 배달이다. 새벽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에 닭과 파우더 같은 걸 주문 수량만큼 배달하는 일인데 경남 일대를 그렇게 다니셨다.

배달 중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상점의 열쇠로 문 열기인데 문을 열어서 각 주인이 원하는 곳에 닭을 두고 문을 다시 잠가 놓아야 하는데 상점의 유리문들 다수가 잠그는 곳이 머리 위 오른쪽 구석에 있었다. 150센티의 아버지는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팔을 쭉 뻗어도 닿지 않았

다. 언제부터인가 목욕탕 의자도 같이 들고 다니신 이유가 바로 이 문을 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닦 배달도 하며 틈틈이 배운 설비일로 아르바이트도 하셔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은행 보증 빚도 다 갚으셨다. 심지어 꽤 성실하게 변제를 해서 해당 은행에서 나머지 두 달 치는 이자 빼고 원금만 갚으라고 했단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남의 보증 빚을 성실히 갚는 분은 몇 없다며 수고 많았다는 인사도 받으셨단다.

마지막 보증 빚을 갚은 날에 엄마는 아버지 국 옆에 소주 한 병을 준비해주셨는데 멋없는 소주 한 병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고단했던 그 몇 년을 어루만져주고 싶으셨던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제는 늙어서 더 고생하지 마시고 하던 일만 하며 지내자는 엄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60대의 아버지는 더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며 자격증 공부를 하셨고 조경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토목초급기술자라는 자격증을 3개나 획득하는 자격증 부자가 되셨다.

“이 아버지 비록 가방끈이 짧아도 아직까지는 머리가 팽팽 잘 돌아 가제?” 하며 합격을 기뻐하셨던 아버지는 일흔이 넘은 지금도 이 자격증들 덕분에 고장 난 곳을 고치는 일을 하신다. 물론 사다리가 늘 필요하지만 그 사다리를 ‘생활필수품’이라고 부르며 함께 일을 나가신다.

지난주에는 고향 시골에 가셔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집을 돌며 고장 난 문이며 화장실, 수도꼭지 같은 것을 살펴드리고 오셨다. 먼 친척뻘 되는 분 댁 창문이 너무 오래되어 여닫는 게 잘 안된다며 뒷방 창문이랑 교체 작업을 해보고 안 되면 구매해야겠다고 일정을 알아보고 계셨다.

이렇게 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하려 다니신다. 손수 버신 돈으로 돌멩이만 가지고 놀던 당신과는 다르게 손주들에게 좋은 장난감도 사주고 싶어 하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힘들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남은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도록 돋고 싶다며, 그게 지금도 일을 하는 이유라고 하신다.

‘저 애’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 작은 아이, 우리 아버지는 남들에게는 왜소한 볼품없는 작은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그의 작은 어깨는 넓은 사랑을 실어놓은 것처럼 당당해 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이 되어 계신다.

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내가 본 ‘그 아이’에 대해서 동화 속의 인물로 만들어 이야기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짠! 하고 “애들아!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로바로 우리 할아버지셔! 훌륭한 어른은 위인전 같은 책이나 TV 속에만 나오는 분들이 아니야. 우리 옆에도 이렇게 멋진 어른이 계신단다!”라고 큰소리로 맷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니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아버지께 직접 말하고 싶다.

“아버지, 당신의 삶은 참 고단하셨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사랑하며 젊은이로서 당신의 삶을 존경합니다.”

ps. 작디작은 체구의 저의 아버지께 이 글을 바칩니다.

그 삶이 초라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어 적어봅니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우수상

할아버지와 나의 3년

박정훈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언제부터 오셨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은 마치 가로수 은행나무가 어느 날 노란 황금빛으로 물들듯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으며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으니 첫눈이 소복이 내린 것처럼 조용하게 나의 삶에 찾아왔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11시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직 영업 시작하려면 30분이나 남아서요.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는 늘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다. 나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감춘 채 서둘러 영업 준비를 하였다. 이후 고 밥이 다 됐다는 전기밥솥 알람이 울리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

는 갓 지은 밥을 덜어내어 단촛물을 봇고 골고루 양념하여 미리 숙성 시켜 재단해 둔 횟감과 합하여 한 점 한 점 마음을 담아 접시에 담았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치아가 많이 불편하셨다. 초밥 한 점을 입 안에 넣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듯 오물오물 천천히 음미하며 오랫동안 드셨다.

늘 첫 손님으로 매일 찾아오셨고 식사가 끝나고 가실 즈음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과 겹쳐서 매장은 늘 정신없이 북적댔고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나에게 언제나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이며 잘 먹었다고 인사를 건네고 가셨다.

처음엔 가게에 오가는 수많은 손님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어느새 내 마음속엔 그중에 가장 특별하고 애틋한 손님이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할아버지가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였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러울까 봐 걱정되었고 매일 오시다가 며칠 안 보이시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었다.

3년 전 중국에서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 나는 조그만 초밥집을 개업하였다. 몰랐다. 나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팬데믹이 올 줄은 모두 공포에 휩싸였고 여행은 물론 외식, 외출 조차 꺼리던 시기였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오가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걱정과 근심만 늘어갔다.

그런 가운데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할아버지는 내게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다. 매일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는 것, 누군가의 점심 한 끼를 매일 책임진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커

다란 위안이 되었고 어두운 하늘 아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고 힘이 되었다.

‘아… 오늘도 오셨구나. 오늘도 오셨어. 오늘은 건강이 좋아 보이시네. 오늘따라 참 맛있게 드시네. 내일 오시면 더 잘해드려야지. 내일은 더 맛있게 해드려야지.’

나는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가 반가웠고 감사했다.

점점 마음이 쓰여서 일하는 도중 힐끔힐끔 조용히 할아버지를 관찰하는 일이 취미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가끔 할머니랑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다. 오랜 세월을 같이 한 두 분 모습은 잘 어울려 보였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처럼 예뻐 보였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아내와 오손도손 밥도 먹고 예쁘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손질하고 남은 생선 머리와 뼈 등을 같이 오신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너무도 고마워하셨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매운탕을 끓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고 잘 드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실 때면 항상 매운탕거리를 챙겨드렸다.

할아버지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셨다. 어느 날은 나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셔서 같이 찍어드렸다. 가게 내부 벽면에는 티브이가 한 대 있는데 메뉴 음식 사진과 방문하신 손님들 사진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이게 해놓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도 티브이에 같이 넣어 놓았다. 할아버지는 식사하다가 티브이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이면 몹시도 신기해하고 반가워하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실 때면 틈틈이 사진을 찍어드렸고 그런 모습들을 티브이 화면에 넣어 놓았다. 그런 것들도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셔서 즐기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나 역시도 할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들이 소소한 즐거움 중의 하나

였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치과를 운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셨다. 6월 25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에게 내 일도 오시는지 물었다. 할아버지는 내일은 6.25 기념행사로 서울에 가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식사하신 거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방긋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셨다.

어느 날은 집에서 보석보관함이라고 알록달록 예쁜 통을 하나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는 악수를 하며 서로 통성명을 하자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르고 나는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내가 가끔 일이 생겨 가게 문을 못 열 때면 허탕을 쳤다고 그다음 날 오셔서 편장을 주셨다. 나도 그런 할아버지께 몹시 죄송스럽고 또 마음이 불편하여 연락처를 여쭤보고 그 뒤로는 사정이 생겨 가게 문을 못 열 때면 미리 전화해 알려드렸다.

작년 1월 내가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가게 문을 못 열고 집에서 격리해 있을 때 할아버지는 매일 나에게 전화를 주며 걱정해주셨다.

재작년 가을에 나는 어느 50대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 기증을 하게 되어 3일 동안 가게 문을 못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화를 주며 걱정해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나도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보이시면 안 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여쭙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꼭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꼭 아들과 아버지 같다고 웃으며 흐뭇해하셨다.

어버이날에는 두 분께 카네이션이 들어간 예쁜 스투키 화분을 선물해드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할아버지는 가게 근처 아파트에 사셨다. 아침에 장을 보고 가게에

출근할 때면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산책하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걸음마를 떼려 하는 아이와 같아서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많이 아프신지 조금 걷다가 앉아서 쉬다가를 반복하셨다.

가게에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앉아서 의자로 쓸 수 있는 보행보조기를 끌고 오셨다. 할아버지의 시계는 고장난 듯이 보였다. 나의 시간과 달리 할아버지의 시간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세상의 이치라지만 몹시도 불공평한 삶의 법칙 같았다. 같이 웃으며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셨다. 대화할 때면 항상 큰소리로 말씀드려야 했다. 치아가 안 좋아서 씹는 게 불편하여 나중에는 틀니를 하셨다. 더 이상 초밥은 드실 수가 없어 나는 고민하다가 전복죽을 끓여 드렸다. 메뉴에는 없지만 틈틈이 전복죽을 끓여 조금씩 소분하여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할아버지는 내가 만들어드리는 전복죽을 참 좋아하셨다.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점심 브레이크 타임이 지나고 오후 장사 를 준비하려는데 할머니가 다급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도움 을 청하셨다. 병원 진료 시간이 다 되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할아버 지가 걷지를 못해 택시를 잡으려니 택시도 없고 병원까지 좀 태워달 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흔쾌히 할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병원에 모셔다드렸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번에도 신세를 졌다며 몹시도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셨다. 나는 할아버지를 병원 앞에 내려드리고 진료 잘 보시

고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라고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도 방긋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셨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며칠째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서야 할아버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날 병원에 가고 며칠 뒤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한다. 코로나로 가족조차 면회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며칠에 한 번씩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할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가끔 흐느껴 우셨고 나도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의 시계는 곧 약이 떨어져 멈춰 버릴 것 같았다. 면회도 안 되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슬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코로나가 몹시도 야속하고 미웠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가게로 찾아온 할머니는 나를 부둥켜안고 펑펑 우셨다. 가을 단풍 예쁘게 물들던 10월의 햇살 좋은 어느 날 그렇게 할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단풍처럼 예쁘게 사시던 할아버지. 들리지도 보지도 잘 먹지도 잘 걷지도 못하는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처럼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인생은 소풍이라던데 지난 3년간 할아버지와 보낸 추억들을 생각해보니 소풍 전날처럼 설레고 소풍날처럼 즐거웠으며 소풍 갔다 온 다음 날처럼 여운이 남았다. 나에게 할아버지는 반가운 손님이었고 때론 말벗이자 친구였으며 따뜻한 아버지 같았다.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어느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하는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여자 주인공의 말에 남자주인공은 통성명, 악수, 포옹, 그리움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연인 사이에서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애듯한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무한한 사랑, 조부모를 향한 사랑, 손주에게 느끼는 사랑,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전해주는 사랑. 통성명, 악수, 포옹 모두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것들이다.

나 역시도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그다음이 지독한 그리움인 걸 보면 할아버지를 향한 애듯한 감정 그건 분명 사랑이었나 보다.

할아버지는 떠났고 나는 여전히 그리운 감정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햇살 좋은 날 가게 문을 열고 방긋 웃으며 들어오시는 할아버지 모습. 할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빈자리. 가게 곳곳에 그리움이 묻어 있다.

꿈을 꾼다. 그곳에서도 할아버지는 내가 만들어드리는 초밥을 맛있게 드시고 엄지척 해보이며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신다. 나도 웃으며 인사를 드린다. 잘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후회와 미련이 남는 걸 보면 많이 부족했나보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아주 먼 훗날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그 곳에 가시거든 웃는 얼굴로 마중 나와 주세요. 잘 지내세요. 아버지 같은 분,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여 이렇게 여성시대 신춘편지쇼를 통해 인사를 전합니다. 할아버지 3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 아들 박 사장 올림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소

가작

멀리서 온 ‘그 아이’

주경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제 친정 형제는 ‘1남 3녀’입니다. 제가 순셋이니 이 ‘1남’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짐작하시겠지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줄줄이 딸만 낳고 손자 소식이 없자 애가 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전보를 친 거지요. 그 전보를 받자마자 할아버지는 낫을 들고 뒤란 대나무밭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 안에서 제일 길고 실한 대나무를 베어 태극기를 다셨답니다. 아무런 날도 아닌데 지붕 위에서 펼럭이는 태극기를 본 사람들은 저 집에 뭔 일이 생겼나 했겠지요. 한동안 이 일은 사람들이 모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거리였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저절로 효자가 된 이 ‘1남’이 실제로 효자이기도 합니다. 간경화로 저승 문 앞까지 가신 아버지를 간이식으로 살려냈으니까요. 딸들보다는 아들 간이 더 적합하기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절차가 더 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생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한다고 주저 없이 수술을 받았지요.

12년이나 지났지만 수술 중에 누구라도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물론 수술은 아주 잘 돼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동생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자 아버지는 동생의 결혼을 걱정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들의 혼사길이 막힌 게 아닌가하고 밤잠을 못 이루셨지요. 서른 중반인 넘은 동생은 가끔 소개팅을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저희는 저러다가 마음 맞는 사람 만날 테니 걱정 하지 마시라고 요즘은 결혼이 다 늦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좀 알아봐라. 어디 돈 내고 하는 데도 있다던데?” 하시며 저희가 동생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러다 아버지 생신이라 식구가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얘를 이렇게 두다가는 까닥하면 혼자 늙어가게 생겼다며 심각하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동네에 캄보디아에서 온 새댁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우리 아들 중매 좀 서 봐!”하고 말을 건넸는데 “우리 이모 딸 있어요. 착하고 똑똑해요!”라고 하더랍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에고 우리 며느리가 거기 있었구 먼!” 하신 거지요.

요는 저희 중에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나려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결혼을 왜 하냐고,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냐고, 또 결혼한다고 해도 이런 시골도 아닌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1남’을 뺀 ‘3녀’와 그 배우자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했지요. 하지만 부모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사자인 남동생이 한 번 만나 볼 마음

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멀미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큰딸인 저와 당사자인 남동생, 여기에 국제결혼을 시켜 본 사람이 가야 제대로 본다고 국제결혼업체 사장까지 네 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 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쳐가에 가는 가족들도 보이고, 국제결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동생도 결혼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살겠구나 싶어서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태어났다고 태극기를 휘날렸던 그 기쁨은 동생의 삶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는 징표였나 봅니다.

밤 비행기밖에 없어서 거의 자정이 되어 도착한 프놈펜에서는 캄보디아 국제결혼업체 사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소개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만나라고 하더군요. 자기 딴에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였을 테지만 듣는 저는 내내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호텔 카페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가 소개받을 때는 분명 스물셋이라고 들었는데 엄마와 오빠 사이에서 수줍은 얼굴로 호텔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긴 생머리에 마른 편이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계속 엄마와 오빠를 번갈아 보는 ‘그 아이’는 제 중학생 딸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저나 동생은 당황스러웠지요. 스물셋도 너무 어리다고 했는데 더 어려 보이니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갔던 거지요.

두 집안이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툴지만 통역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3남 1녀’의 막내이며 오빠들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특히 같이 온 큰 오빠는 나름 유명한 요리사여서 다른 나라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도 우리보다 더 잘하긴 했습니다. 나중에는 통역을 통하지 않고 짧게나마 영어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왜 한국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 한국에 있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 오빠도 저희에게 왜 한국 여자랑 결혼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혹시 결혼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와 오빠는 우리가 궁금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 아이’는 엄마 옆에서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기만 했습니다.

호텔에서 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 함께 프놈펜 관광에 나섰습니다. 나눠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아버지는 차에 타자마자 업체 사장에게 “어떤가?” 하고 물으셨지요. “이만한 집 없지요. 제가 보기엔 딱 좋습니다!”라고 아버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지는 역시나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동생에게는 “딱 좋다!” 하고 생각을 물어보는 대신 그냥 답을 하셨습니다.

동생과 ‘그 아이’를 앞세우고 우리는 큰 시장에도 가보고, 왕궁 근처도 돌아보면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그 아이’에게 사고 싶은 거 있는지 먹고 싶은 거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거의 시아버지이셨습니다. 뒤에서 보니 동생도 ‘그 아이’ 옆에서 손짓·발짓으로 뭔가 권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으러 간

북한 식당에서는 북한 종업원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얘기를 묻더니 동생과 ‘그 아이’를 보며 “잘 어울립니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습미다!”라고 해주니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셨지요.

다음 날 만나기로 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씻고 나니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너무 궁금해할 한국의 식구들에게 그 날 찍은 사진과 인상을 전하고 엄마와도 통화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시지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한 사람을 더군다나 우리만 믿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온 사람을 온전히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웬지 저는 이 결혼이 제 책임으로 다가와서 자꾸 겁이 나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다 잘될 거라고만 하시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미 상견례 같은 것도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은 ‘그 아이’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여기 까지 왔으니 자기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일 때문에 못 온 ‘그 아이’ 아버지도 만나고 가라고 초대한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로 세 시간을 달리고 다시 작은 나무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서 그곳에 갔습니다. 메콩강은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닌데도 강변에서는 풍덩풍덩 강으로 뛰어들면서 노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놀았겠지요. 강물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이 너무 맑게 웃어줘서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혹시 얕잡아 본 게 아닌지, 그래서 흔쾌히 ‘이 아이’에게 마음을 못 여는 게 아닌지 제 마음을 뒤집어보며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놀랍게도 배에서 내리자 동네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걸어야 하는데 길이 안 좋아 걷기 힘들다고 오토바이 뒷자리를 내어준 거지요. 이런 일은 종종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맞아주니 감동이었습니다. 커다란 원두막처럼 생긴 집 앞에서 우리를 맞아준 '그 아이' 아버지는 정말 시골 농사꾼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들끼리 두 손을 맞잡고 서로 통하지 않는 말로 반갑다고 인사하는 모습은 벌써 한 가족이 된 듯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들도 와서 인사하고 동네 꼬마들은 뭐가 신기한지 쭈뼛쭈뼛 쳐다보는 게 영락없이 우리 어릴 때 같았습니다. 애들은 다 비슷한 가 봅니다.

또 놀란 건 큰 절에서 스님을 모셔 온 것이었습니다. 바쁜 스님에게 결혼할 딸과 예비 사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한참을 불경을 외고 가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부부가 될 것이라는 걸 스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오빠들이 차린 점심도 맛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요리사라고 했는데 작은오빠들도 제법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국 마트에서 한국 쌀도 샀다고 보여주는 오빠들이 정겨울 정도로 이틀 만에 식구가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 아이'는 저를 "언니 언니" 하면서 자기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뒤에 타라는 손짓을 하고는 운전석에 턱 하니 앉는 겁니다. 저는 "나 무거워서 안 돼! 넘어져!"하고 손짓·발짓으로 얘기했지만 '그 아이'는 괜찮다고 자꾸 제 손을 자기 허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길은 오토바이도 지나가기 힘들게 울퉁불퉁하고 웅덩이도 많았지만 무거운 저를 잘 태우고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절이었습니다. 큰 절에는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커

다란 나무 불상 앞으로 가서는 불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불상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우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저도 불전함에 얼마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착한 동생이 이 캄보디아 아이와 좋은 가정을 이루게 도와달라고, 멀리 바다를 건너온 이 아이가 덜 외롭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여행이 끝나고 동생은 몇 번 더 캄보디아에 다녀 오고, 2박 3일에 걸쳐서 캄보디아식 결혼식도 하고 드디어 ‘그 아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학부모가 되었고 주민등록증도 있는 당당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아이’가 아닌 올케입니다. 우리 올케는 저희에게 와서 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꽃이 더 이쁜 두 꽃을 낳았답니다. 가끔 이 꼬맹이들을 보고 있자면 멀리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신기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달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보이시게 높게 높게 달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올케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올케는 알까요? 결혼이란 게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는 걸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할 뿐이지 다들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대신 올케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갈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처럼 올케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딸 2명이면 금메달, 아들딸이면 은메달, 아들 2명이면 은메달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 아들 3명의 아빠였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막내는 4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소(카센터)를 운영할 때라 가족 모두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생활비 풍족함의 기준은 모르겠으나 아이 엄마가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휴일에는 아이들과 놀이공원에도 가고 나름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 문제의 시작은 큰아이 7살, 둘째 아이 3살 때입니다. 일이 조금 한가해서 집에 전화하니 큰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아빠 살려주세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가놓아 아이들만 집안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아이들에게 물으니 엄마가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한다고 문을 잠갔다는 말에 이모 집에 가보니 동네 아줌마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아이 엄마를 보며 화가 났지만 열쇠만 달라고 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아이들은 나를 꼭 안고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려니 기가 찼습니다. 그 후로도 똑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각서도 여러 번 썼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엄마는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노름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 신경을 더 쓸 것 같다고 하여 막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심 딸을 기대했지만 또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낮가림할 때 아빠에게 오려고 하지 않고 울기 일쑤였는데 막내는 태어나서 아빠 소리를 제일 먼저 하였고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에게만 매달렸습니다. 내가 출근할 때도 나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우는 아이가 여간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엄마는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경마에까지 빠져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들과 가정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싸움만 늘어갔고 나 또한 지쳐만 갔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내용을 확인했고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녹이 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끊고 각종 공과금, 학비, 아이들 학원비, 식료품은 적어 주면 직접 사다 줬습니다. 언니 집에서 놀다 왔다고 하는 여자가 새벽에 들어오고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펄펄 났지만 뭐

라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등을 내가 관리하자 아이 엄마는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니 새끼 니가 키우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지나면 들어오겠지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활도 엉망이 됐고 정비소 운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또한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엄마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가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니 우리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며 이모 집에 갔다고 말씀 하셔서 나는 집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아이를 데려올까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와 이모 집 쪽으로 향하다 담벼락 옆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아이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울었던지 얼굴이 통통 부어 있고 눈물 콧물이 얼굴에 꼬질꼬질 묻어 있고 울다가 토했는지 옷은 음식물 범벅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안고 “왜 여기서 울고 있어” 하자 아이는 다시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모 집에 갔는데 이모가 엄마 다른 곳에 시집보낼 거니까 앞으로 이모 집에 오지 말라고 해서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가 나를 안 쳐다보고 이모가 나를 내쫓았어. 내가 엄마한테 간다고 떼쓰고 매달렸는데 나를 끌어냈어.”

아이의 말을 듣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를 씻기고 나서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이제부터 엄마는 다시는 안 올 거야. 엄마가 아들 셋 낳고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까 우리가 인생에 휴가를 보내줬다고 생각하자. 이제부터 우리 넷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나 역시 겁도 나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도 잘 가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께서는 무척 착하던 아이가 요즘 들어 너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를 꼭 지켜주는 튼튼한 기둥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썽부리고 나쁜 짓하고 아빠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아빠가 쓰러지게 되면 너희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엄마랑 살고 싶은 사람은 엄마에게 가서 말해.”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진심이 잘 전달됐는지 그 후론 말썽 한 번 피우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모든 나의 시간과 삶의 에너지는 막내 아이에게 맞춰졌습니다. 입학식에 가니 대부분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었고 아빠와 온 아이는 우리 단 둘뿐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나는 아이 기를 살려줄 겸 아이에게 “아들, 아빠 한 번 안아줘야지”라고 하면 아이는 “아빠 저만큼 서 있어.” 내가 “여기?” 하면 “아니 더 뒤로.” 그리곤 멀리 서 있는 나를 향해 “아빠”하고 외치며 달려와 펄쩍 뛰어 안겼습니다. 나는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등하굣길에 많은 아이 앞에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정비할 일이 생겨도 아이들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다

시 정비소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고 아침밥 먹이고 막내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조차도 나에게는 사치인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상 모서리에 눈 위쪽을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양호 선생님께서 지혈해서 피는 멈췄는데 상처가 커서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하는데 아빠만 찾고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기에 제가 아이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자 아이는 겁을 먹고 싫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우는 아이에게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별레가 알을 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며칠간 아빠와 떨어져 자야 한다고 하자 아이는 상처를 꿰매야겠다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처가 많이 벌어졌다면서 마취하고 소독하고 꿰매는 중에도 아이는 울지 않고 잘 참아줬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울먹이며 “의사 선생님, 별레 안 들어가게 잘 꼬매주세요” 하는 아이의 말에 아빠와 얼마나 떨어지기 싫었으면 저럴까 하는 측은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큰아이가 “아빠, 누워봐”하며 동생에게는 “너는 아빠 팔 주물러 드려. 나는 다리 주무를게” 하면 막내도 “나도 할래” 하며 등에 올라타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과 어깨를 두드리면 형들이 하는 안마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막내 행동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하고 하면 막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사랑해” 하며 몸을 좌우로 흔들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생각과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간혹 힘들고 고달프면 그때를 생각

하면 10년 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마가 끝나면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서로 내가 더 잘 주물렀다고 생색을 내며 “아빠는 누구 손이 더 시원했어” 묻습니다. 나는 항상 막내 1등!

“아빠는 맨날 막내만 이뻐해.”

“너희는 아빠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 막내는 엄마 사랑을 못 받은 만큼 아빠가 그만큼 더 채워줘야 공평하잖아.”

어느덧 막내는 잘 자라줬고 특성화고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교 가야지” 하자 “아빠, 대학교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그때 다닐게요”라는 말에 아이 의견에 따라 특성화고에 보냈습니다.

그 사이 큰아이와 둘째 아이도 각자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무사히 성인이 되었고 막내도 3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소개해준 중소기업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회사는 아이가 첫 출근하던 날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시켰고 때로는 새벽 1시까지 일했고 시내버스가 끊겨 내가 퇴근을 시켰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출근하는 아이가 안쓰럽고 불쌍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사회 적응 중이라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다녔습니다. 아이가 나에게 조금만 더 다니고 균대에 가면 어떠냐는 말에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학교 후배들이 실습 나온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선배답게 후배들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고 아이가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고등학교 실습 담당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회사 차장이 학생들에게 갑질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학교에 보고

했고 선생님께서 차장과 싸우고 학생들을 철수시켰지만 우리 아이는 출업을 해서 아버님께 연락드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 아이에게 물어보니 몇 달만 참으면 군대 가니까 그때까지 만 다니려고 했다는 말에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에게 말해도 돼” 하자 그때서야 아이는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직장 내 갑질을 당했고 휴대폰에는 너무 심한 내용의 문자 일색이었습니다. 왜 진작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아빠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봐서 참으려고 했다면서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겼다는 아이를 보며 그동안 말 못 하고 묵묵히 견뎠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내일부터 회사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자 사장님도 알고 있는 듯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체크 못 하고 신경을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기에 전화를 끊고 아이에게 “너 군대 갈 때까지 6개월 남았는데 집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실컷 놀고 군대 가”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아이는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밤새워 컴퓨터 게임도 하고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지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사직서를 이메일이 아닌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더군요. 당장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아이를 다시는 그 회사에 한 발짝도 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1년 6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주 80~90시간 씩 일시키고 월급은 기본급보다 적은 150만 원 주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모든 내용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사직서도 노동청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바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나는 아이에게 그동안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사직서에 적으라고 하여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빼줄 수 없냐고 했지만 한 글자도 빼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이를 태우고 훈련소로 향하는 내내 아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긴장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도 숟가락을 바닥에 3번이나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준희야, 아빠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어.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은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어”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라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훈련소 정문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들 사랑한다, 힘내고 파이팅!” 하고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을 때 전화벨 소리가 울려 보니 막내였습니다. 나는 순간 아이가 뭘 놓고 내렸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군 생활 잘하고 집에 갈게요. 아빠 사랑해요.”

부대에서 휴대폰을 반납하기 전 제일 전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가 그리도 가슴에 맷沁(마음에 맛이沁)한게 많았는지 20년 가까이 참았던 눈물이 기나긴 흐느낌이 되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아이가 입대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국방부 장관 명의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 특수전단에 배속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훈련이 힘든 부대여서 걱정했는데 휴가 때 아이의 말에 의하면 일반 부대보다 훈

련수당과 생명수당 등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에 여러 명 지원했는데 혼자만 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군 생활을 힘들게 해보는 것도 미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면회, 외출, 외박도 금지였고 오로지 휴가 나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입대 후 5개월쯤 됐을 때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레 목요일에 휴가를 나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부대에 이동 경로를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요. 아빠가 차로 데리러 간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지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직접 오시기 때문에 아침 7시 30분에 신고하고 바로 나갈 수 있고 다른 병사들은 다 같이 모여 부대 버스로 아침 9시 터미널까지 태워다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 쇠고기 장조림 재료 등 시장을 본 후 재료를 손질하고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워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몇 가지 반찬을 만들고 나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대까지는 대략 6시간 정도 거리니까 여기서 새벽 1시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샤워만 하고 바로 출발하였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며칠 푹 잔 것만 같았습니다. 5시 30분경 부대 앞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주차하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어디야?” 하는데 부대 앞에는 건장한 군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씩씩하고 늠름한 막내였습니다. 우리는 집에 오는 길에 맛집 투어를 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아들 천정희. EBS 청년 캠페인 드라마에서 청년 역을 열연하는 네 모습, 뮤지컬에서 공연하는 네 모습 볼 때마다 아빠는 한없이

기쁘고 너를 응원한단다.

둘째 아들 육군 대위 천동희. 네가 소위와 중위 때 소대원들과 면담하고 나서 “아빠,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아빠는 네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나에게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던 막내 천준희.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만약 신께서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빠는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할 거란다.

내가 너희를 돌봐준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없었다면 아빠는 폐인이 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단다. 너희가 있었기에 아빠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됐고 아빠의 삶에 활력소가 됐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생각한단다.

나에게는 한없이 어리고 천사 같던 막내 ‘그 아이’는 얼마 전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까지 교통편이 좋지 않아 6개월 정도 내가 출퇴근시켜 주자 지인분께서 아이 출퇴근에 쓰라고 차를 주셔서 2개월째 도로 주행 연습 중입니다. 주위 분들과 친구들은 “나는 우리 애 1시간 도로 주행 연습시켰는데 무슨 도로 주행 연습을 두 달씩이나 하냐?”고 하지만 1시간보다는 10시간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30년 무사고 경험을 요소요소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이젠 나 혼자 운전할게요’ 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볼까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니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빨간 원피스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유수현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오 늘도 정말 예뻐. 소중해. 네가 몇 킬로이든 상관없어. 넌 최고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한 아침 인사입니다. 아직 상처가 남은 100kg의 제 어린 시절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저는 바쁜 부모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채소시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장사를 마치고 이른 잠자리에 드는 아버지와 늦은 밤까지 미용실을 하는 엄마 사이에서 저는 6살부터 혼자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만 원짜리 두 장이면 매일 짜장면, 치킨 등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한 지 2년 만에 저는 8살에 50kg이 되었습니다. 소아 고도비만이었지요.

초등학교 1학년 첫 신체검사에서 50kg의 체중이 알려진 뒤 학교에서 금세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고학년 남학생은 제가 지나가면 “돼지가 간다”라며 비웃었고, 여학생은 제가 창피했는지 저를 피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더 살이 찌면 아이들이 저를 더 싫어할 거라며 충고했습니다. 놀리는 친구들이 아닌 놀림당하는 저를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적응 못 하는 학교는 힘들었고, 여전히 부모님은 바빴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서랍장 위 만 원짜리 두 장으로 배달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친구 한 명 없는 저의 유일한 즐거움은 일요일 오전 디즈니 만화를 보며 먹는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어요.

중학생이 되던 해에 엄마는 제게 색이 환한 옷을 버리고 어두운 까만색 옷을 사주셨습니다. 엄마는 “너는 덩치가 크니까 밝은 옷 입으면 더 부해 보여. 어두운 옷이 슬림해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버려진 저의 빨간색 원피스가 자주 생각났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혼자였던 저는 살은 더 찌고 마음은 더 음침하고 난폭해졌습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채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 가운데 중학생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이 제 등에 껌을 붙이고 손이 닿지 않는 저를 보고 놀렸던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껌을 붙이는 것보다 싫은 건 몰래 붙인 낙서 종이었습니다. ‘돼지, 돼지 냄새, 뚱보’ 등 아이들의 낙서 종이에 무어라 쓰여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게 상처 될 말이 쓰여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학생들의 심한 놀림에 제가 화를 내고 일어나면 아이들은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폭력적이고 화를 낸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건 저였지만 선

생님에게 불리는 것도 저였습니다.

“너는 덩치가 커서 위협적일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라.”

저는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지 못했어요. 제가 학교 식당만 가도 웃는 소리가 났으니까요. 밥 먹는 저를 보며 학생들은 “또 먹어?” “쟤 때문에 밥맛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까만 옷만 입는 덩치가 큰 여학생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은 제게 지옥 같은 순간들뿐이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딸을 저렇게 방치하면 어쩌냐?” “딸을 관리시켜라”란 주위 사람들 이야기에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굴었습니다. 제게 팔을 오므려라, 사진은 가장자리에서 찍어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어둡고 칙칙한 까만 옷을 사주셨습니다.

제가 음식 먹을 때면 부모님은 말없이 제 뒤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치 보며 먹는 식사는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처럼 급하게 최대한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먹어 치웠습니다. 먹어 치운 음식은 고스란히 살이 되어 저는 100kg의 체중으로 20대를 맞이했습니다.

살이 찐 뒤 10대와 20대의 절반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100kg이라는 제 체중은 저를 보는 이에게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저를 마주치면 동네 사람들은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한 마디씩 조언했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난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기 관리 못 하는 부끄러운 딸로 동네에서는 가장 뚱뚱한 여자아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27살의 저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다이어트를 결심한 겁니다. 전에도 다이어트를 했지만 20kg을 빼고 30kg의 요요가 오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알려준 건 엄마의 친한 손님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추천해 주었어요. 약을 먹고 살 안 빠진 이가 없다는 이야기에 엄마와 함께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제 눈에 마른 사람조차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으려고 왔습니다, 한의원에서 한의사와 진료를 본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표체중을 물은 뒤 처방전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한약을 먹으니 정말 입맛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던 치킨이 앞에 있어도 고기를 구울 때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 냄새에 속이 역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욕은 줄었지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심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밤이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은 잘 빼졌습니다. 한약을 먹은 지 6개월 만에 50kg이 넘게 빼졌습니다. 숨기고 싶은 별 같은 딸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도 달라진 저를 반가워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관심이 즐거웠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입던 칙칙한 까만 옷들은 버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한 뺨간색의 옷을 샀습니다. 옷장 안 뺨간색의 옷들이 늘어날 때마다 제 기쁨도 커졌습니다.

살이 빠진 뒤에야 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몰려서 온다고 했던가요? 행복은 또 있었습니다. 제게 첫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늘 해오던 짹사랑이 아닌 진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그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운동하고 식단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해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온 최고의 행운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제가 행운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제게 좀 더 살을 뺄 것을 권했습니다. 50kg을 뺐지만 전 60kg대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 다이어트를 말했습니다.

“아침에 공복 유산소 운동하고 점심에 근력 운동하고 자기 전에 자전거 타고 자.”

“식단 철저하게 하고 있어? 염분 조절 잘해야 해. 닭가슴살 어디 브랜드 먹어?”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자친구가 아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자친구의 간섭이 힘들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에게 혹독한 시간이 늘어났어요. 다이어트약 먹는 횟수가 늘어나고 먹고 토하는 일이 잣아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자전거를 몇 시간 타야 하는지,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지 계산하며 초조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살이 빠지지 않는 저를 독촉했고 이쯤 되니 저는 다이어트 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어트약의 개수가 6알이 넘을 때쯤 제 몸은 매우 변해 있었어요. 먹고 자주 토해서 위는 자주 쓰렸고 머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탈모가 왔습니다. 심한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몸이 고된 날은 귀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100kg의 비만이었던 저보다 60kg의 정상체중인 저는 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결국 피폐해진 제게서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우고 떠났습니다. 제 첫 연애이자 첫 남자친구가 떠난 뒤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매일 가는 아침 6시 공복 운동을 빼지고 물 3리터를 마시기 위해 시간마다 올리

는 알람을 깼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TV를 켰습니다. 러닝머신을 뛰며 보던 드라마를 누워서 봤어요. 1년 만의 휴식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숨겨둔 맥주와 참치캔을 가져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고 참치캔을 떠먹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몇 년간 느껴본 적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맥주와 참치캔 덕분에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꽤 괜찮다는 것을요. 제가 몇 킬로이든 저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킬로이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몇 킬로이든 저는 지금의 저를 사랑한다는 걸 말이죠. 부모님도, 같은 반 친구도, 남자친구도 아닌 저만 아는 제 모습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어린 시절 100kg의 상처 많은 아이는 시간이 지나 3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살이 찐 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요즘 다시 찌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거야?”라고 말이에요.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아, 제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요.

오늘도 저는 옷장에서 빨간 원피스를 고릅니다. 원피스 안에는 2XL의 사이즈가 적혀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체중이 몇 킬로이든 저는 빨간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 제 눈에 저는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거울에 서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예뻐. 소중해. 내가 최고야.”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다!

정재우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삼 촌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다. 암이라는 정말 독하다독한 놈은 삼촌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 날 손잡고 행진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말이다.

사촌 동생은 삼촌이 노랗게 단풍이 들자 16살 중3일 때 고등학교 1학년생 학원 오빠를 남편감이라고 삼촌에게 소개했고 당장 결혼을 시켜주라고 했다. 본인이 봐도 삼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보다.

당연히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날 가족 잔치는 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도 시키고 라조기, 양장피도 시켰다. 족발에 쟁반국수, 프라이드에 양념치킨까지 막걸리에 소주, 맥주, 양주도 다 모였다. 오랜만에 사촌 동생 때문에 웃음꽃이 피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다. 둘이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책임진다는 거였다.

사실 나도 결혼할 때 형편이 좋지 못해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2~3년 더 벌어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했는데 삼촌이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더 못 간다고 그 당시 최고의 여행지인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셨다. 다른 건 못 지켜도 사촌 동생 신혼여행은 꼭 내 손으로 보내주고 싶었다.

근데 3년 전 사촌 동생이 나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오빠, 돈 많이 모아두었지? 조만간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

“뭐야 너 사고 쳤어?”

“사고는 아니고 좋은 일이야. 아빠 소원 한 번 들어주려고. 암튼 돈 많이 모아두고 약속은 꼭 지켜. 우리 둘 다 기억력 좋아!”

“우리 둘 다?”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다. 그것도 11년 전 고등학교 1학년생 그 친구 하고 말이다. 둘은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다고 한다. 간호사와 환자로 말이다. 사촌 동생은 비뇨기과에 간호사로 있고 신랑감은 요로결석 때 문에 병원에 왔다고 한다. 요로결석이 출산의 아픔과도 같다고 하는데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둘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다고 한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삼촌의 입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한다. 장난으로 둘이 결혼했고 그 때 삼촌이 신부 손을 잡고 입장을 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이제 나도 걱정이 생겼다. 약속은 지켜야겠고 가계는 풍족하지 못하니 세계 여행은 곤란하고 삼촌이 보내준 사이판 정도는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았다.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니 아내는 항상 하

던 말이 있다.

“당신은 입만 다물면 최고인데 입이 방정이고 보살이야.”

뭐 할 말이 없다.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오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아내도 사이판 정도는 보내주어야겠다고 먼저 말을 했다. 정말 고마웠다.

근데 또 사건이 터졌다. 결혼 날짜도 다 잡고 사이판 예약도 끝났는데 전 세계 문이 닫히고 말았다. 야속한 코로나는 정말 사촌 동생을 수도 없이 울렸다. 결국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신혼 여행은 포기하기로 했다. 환불받은 금액을 사촌 동생에게 주면서 나중에 다시 신혼여행을 가라고 했더니 못 받겠다고 했다. 여행을 보내주는 것과 돈을 주는 것은 다르다고 하면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보내주라고 했다.

사촌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자신은 정말 불행하고 삼신할머니가 버린 아이 같다고 했다.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아빠를 잃었고 엄마는 아빠 잃은 아이를 버리고 다른 가족을 찾아 떠났다. 마지막 혈육인 할머니마저 1년 전 세상을 떠나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운데 이제 신부가 되어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제일 행복하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날조차도 외로운 신부가 된다는 거였다.

나도 코로나19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결혼을 연기하자고 했더니 예식장 대여랑 준비한 일정이 있어 그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정말 간소하고 외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조명과 드레스가 없다면 정말 장례식장인지 결혼식장인지 구별이 되지도 않았다. 웃음보다는 울음이 더 많은 결혼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삼촌이 했던 말 기억해?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더 못 간다



고… 우리 아가씨 세계 일주 보내주자!”

아내는 사돈에 팔촌까지 도움을 요청해서 3박 4일로 캠핑카를 빌렸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역 명소를 찾았고, 이벤트를 위한 물건들을 구매했다. 정말 우리나라라는 인터넷 초강국에 물류 대국 같았다. 지역 중고 커뮤니티와 직거래 앱에서는 없는 물건이 없었다. 그리스 그릇, 옷, 그리스 주요 관광지의 냉장고 자석인 마그넷도 있었다. 올리브 비누에 산토리니 파우치와 에코백까지 아내는 사람들과 직거래 약속을 잡았고 나는 열심히 수거를 했다. 독일 그릇에 뮌헨 시티컵도 있었고 비타민에 치약, 핸드크림까지 정말 없는 것이 없었다. 아내

는 약속을 잡고 나는 열심히 동네를 돌며 수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트로 갔다. 각 나라의 식료품을 구매했고 신선한 해산물도 샀다. 수입식품 판매대에서 식자재도 사고 하와이 커피와 초콜릿도 구매했다. 하와이 특산물인 마카다미아도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와 진짜 현지 느낌이 나도록 한국말로 표기된 스티커를 물파스로 열심히 제거했다.

다음날이 밝았다. 나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했다.

“출발 준비되었지? 이제 세계 여행 시작이야.”

“오빠, 농담하지 말고. 요즘 시국에 어디가?”

“암튼 우리 9시에 도착할 거니까 나와. 3박 4일 동안 우리만 믿어!”

아내와 나는 사촌 동생 신혼집으로 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촌 동생도 기대에 차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사촌 동생이 캠핑카에 오르자 이 비행기는 그리스도로 가는 비행기라고 했다. 어색함에 서로 웃음이 빵 터졌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여행지는 아산 지중해 마을이었다. 그리스 산토리니와 비슷하게 꾸며진 테마 마을이다.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은 진짜 산토리니를 옮겨 놓은 것 같았다. 코로나로 관광객도 없어 더욱 해외에 온 것 같아서 사진도 참 많이 찍었다.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아내와 나는 급히 캠핑카로 돌아와 점심을 만들었다. 당연히 홍합 요리였고 그리스에서 만든 현지 그릇에 예쁘게 담았다. 사촌 부부는 너무도 기뻐하며 환호했다.

“정말 그리스에 온 것 같아!”

식사가 끝나고 다음 여행지로 출발했다. 이번에는 하와이였다. 아쉽게 부곡하와이가 2017년 폐장하여 못 가고 주변에 있는 온천 호텔에 갔다. 가족탕에서 각자 온천도 즐기고 맛있는 식사도 주문해 먹었다.

아침은 하와이 커피에 초콜릿과 마카다미아도 먹었다. 문구점에서 구입한 꽃목걸이를 차고 부곡하와이 표지판에서 사진도 찍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여행이었지만 나름의 재미도 있었다. 촌스럽지만 즐거운 여행!

다시 유럽으로 떠났다. 남해 독일마을로 갔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님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독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사진도 찍고 과자도 사 먹었다. 마을 전경이 다 보이는 광장에서 뮌헨 시티컵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 독일도 다 구경했다.

독일에서 핀란드로 갔다. 봉화 분천역 산타 마을에서 빨간 지붕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철 지난 크리스마스도 보냈다. 아이가 되어 산타에게 소원도 빌었다.

마지막으로 강원 알프스로 갔다. 평창 스위스 마을로 가서 양고기에 와인도 한잔하고 풍력발전소에서 사진도 찍고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캠핑카에서 요들송을 들으며 풍뒤를 만들어 먹었다. 치즈에 올리브유와 마늘을 조금 넣고 잘 녹인 다음 바나나, 토마토, 오이 등 남은 과일과 채소, 빵을 찍어 먹었다. 정말 여기는 스위스 작은 마을이었다. 그날따라 별도 얼마나 많던지! 서울이 아닌 강원도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다. 풀벌레 노랫소리까지 더해지니 감성도 촉촉해진다.

결국 사촌 동생은 또 울음을 터트렸다. 새신부가 계속 울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새신랑까지도 같이 운다. 나도 울고 아내도 울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았으면 천상 귀곡산장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친척이 아니고 가족이 되기로 했다. 3박 4일의 세계 일주는 정말 멋지게 끝났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소

입선

그 아이 ‘봄’

이희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저 는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딱 50대에 들어선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만큼 거리가 가깝고 근무 시간도 좋았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을 기다릴 정도로 일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쟤잘재잘’거리며 삼각김밥에 컵라면 한 개씩 사 들고서 친구가 몇백 원이 모자라면 서로의 지갑을 열고 가방을 뒤져가며 보태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꺄르르~ 까르르~’ 웃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제 모습은 ‘엄마의 미소’였습니다. 게다가 “안녕히 계세요~”하며 예쁘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며 하루를 웃음 짓는 보람된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원피스를 예쁘게 입은 여자아이가

무거운 편의점 유리문을 열지 못하고 두드리면서 손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까이에 있나?’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두 분은 편의점 테라스 테이블에 유모차를 세워놓고 딸의 동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마중 나가 유리문을 활짝 열어주었더니 “꺄~ 꺄~” 소리 지르면서 들어와 총총걸음으로 진열된 물건에서 기가 막히게 뾰로로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는 족집게처럼 뾰로로 캐릭터가 있는 과자와 장난감을 집어냈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봄아 그러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봄아 다 먹을 것도 아니면서, 이놈~” 말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아장아장 걸으며 재롱을 부리는 아이의 이름은 ‘봄’이었습니다. 과자를 까서 한 개를 맛보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 뾰로로를 찾아내서 열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봄이는 흥분된 상태에서 눈도장 밭 도장을 구석구석에 찍고 다닙니다. 말은 못 하지만 온갖 표정과 행동으로 부모를 제압시키는 모습이 너무도 귀여웠습니다.

저도 물건이 섞이면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만 아이의 행동이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어린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이쁘기만 하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쪼그려 앉습니다.

“안녕? 봄아? 이름이 ‘봄’이구나. 예쁜 아가씨, 몇 살이에요?”

인사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빤히 내 얼굴을 살피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아빠! 아빠!”하며 아빠에게로 갑니다.

아,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며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의 손을 잡은 순간 익숙한 느낌과 함께 둘째 딸이 생각났습니다. 보들보들한

피부의 감촉은 제 둘째 딸의 손을 잡은 듯했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만져 보고 느껴본 이 기분은 뭐지?’

바로 둘째 딸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딸에게 뾰족하며 스킨십했던 그 느낌을 내 손이 기억해 낸 것입니다.

사실, 제 둘째 딸은 2019년 12월 29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둘째 딸이 22살의 인생을 살고 제 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슬픈 그리움의 추억을 참아내기에 이리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을 돌보며 만지고 부비부비했던 그 느낌, 내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해 내는 시간은 0.0001초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딸은 낳을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병원마다 문을 두드리며 검사하고 치료하면서 기적을 바랐지만 딸은 모든 기능이 퇴화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에 기능장애 인지장애 운동장애. 신체의 모든 기능이 모두 퇴화하는 여자아이만 걸리는 ‘레토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서울대 병원에서 판정받았습니다.

22년간 살아온 둘째 딸의 세계는 방안의 천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의 보살핌을 24시간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할 줄을 모르니 알아서 먹여주고,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자리를 비우면 생사가 오가는 위험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뜯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고맙다’라는 말도 못 듣고 ‘엄마’라는 호칭도 들을 수 없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집에만 있다가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처음 얹은 직장에서 일하니 모든 게 새롭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였던 내 몸들이 기관들이 내 자식의 살냄새와 그 느낌

을 기억하며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딸이 생각나고 울컥해지는 감정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봄이의 부모님과 친해졌고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봄이의 '참새방앗간'이 되었습니다. 봄이의 부모님과는 늦둥이를 낳게 된 사연과 직장 이야기와 육아 휴직 등등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며 친해졌습니다.

“이모님, 봄이가 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주먹밥을 만들면서 놀이처럼 해보세요. 모양을 다르게 만들면서 먹다 보면 아이가 재미있어 할 거예요.”

부부의 육아 고민을 이야기하고 저의 얇은 육아 정보와 경험을 나누면서 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봄이는 배가 항상 불러있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아이들의 배는 볼록해지기도 하지만 항상 불러 있는 배와 숨 쉬는 소리의 “쌕~ 쌕~” 소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잘 놀고 뛰어다니기에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봄이의 부모님에게는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아는 척하는 것이 참견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거의 매일 보던 봄이가 보이지 않기에 봄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나요?”하고 물었습니다.

“이모님, 봄이가 감기에 걸려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더군요.”

“아니 왜요? 어디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봄이의 배가 불러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랍니다. 심장 쪽으로 문제 가 있어 배에 복수가 가득 찬 거라네요.”

그렇게 잘 뛰놀던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봄이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에 침대를 옮기며 부모들은 노심초사 희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 면회도 금지되고, 길어지고 있는 병원 생활과 병원비 등으로 점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제한성 심근병증’

봄이의 병명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본인의 심장이 고장 나 회복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봄이와 봄이 부모님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대학병원에서 엄마는 봄이 곁을, 아빠는 병원 문밖에서 딸의 주변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 둘째 딸도 그 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픈 6살 딸아이를 업고 치료받으러 다니던 소아신경과의 병원 내부가 기억납니다. 어쩜 그렇게도 상황이 겹치는지 놀랍더군요.

봄이 아버님하고는 힘들고 지친 마음에 뭐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생각날 적마다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위험한 고비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심장이 나왔는데 60대의 심장이라서 봄이에게는 맞을 수가 없는 심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비슷한 또래의 심장이 나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던 아이의 심장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기뻤다가 절망하기를 반복하면서 부부는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나 봄이의 부모님은 봄이만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

르는 심장과 시간과 때의 절묘한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아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 유지하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 봄이의 심장이 나왔어요.”

봄이 아버님의 가슴 벅찬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봄이의 두 번째 생일이 되겠어요. 잘될 거예요.”

봄이가 이식받을 심장은 6살 남자아이의 심장으로 뇌사 장기기증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봄이와는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난관이 많으므로 의사도 부모님도 조심스럽게 진행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기다려 온 수고와 땀의 결과이자 봄이의 부모에게 주시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뇌사자 심장이라 상태와 이동 과정의 안전 등 모든 과정이 일분일초라도 착오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장은 2022년 12월 28일에 제주도 병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의료진이 새벽에 출발하여 제주도에 도착하고 심장을 적출해서 안전하게 도착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통수단과 날씨까지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봄이는 심장 도착 바로 직전에 맞춰 인공심장 기계를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도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모님, 염치없지만 기도 좀 세게 부탁드릴게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 기분은 날아갈 듯 좋은데요. 머릿속은 복잡하네요.”

“예~ 예~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밥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두 분 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조금만 힘내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도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오전 밤새워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님, 봄이는 심장이식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중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은 잘됐다고 하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봄이 엄마도 그 자리 지키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하지만 자기 장기가 아니라서 앞으로 몸에서 일어날 거부반응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있나요. 봄이가 잘 버텨준 덕이죠. 봄이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봄이는 엄마 아빠에게 앞으로는 기쁨을 줄 아이가 될 거예요.”

봄이 아버님은 기쁜 소식과 함께 집중 치료받고 있는 봄이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순간 제 딸이 생각났고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봄이는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아 하늘에서 기도 많이 했구나.”

꺼져가는 생명이 재탄생한 장면을 목격하니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봄이 아버님, 봄이는 2022년 12월 29일에 새로 태어났지만 제 딸은 같은 날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내 딸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탁했나 봐요. 나를 잊지 못하고 슬퍼하며 가여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그 아이 살려주라고…’

결국 봄이는 그날부터 새로운 심장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의 부모님의 심장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자식을 다시 한번 낳은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봄이 부모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수백 번 수천 번을 울고 울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되고 싶고 돋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건, 자식의 빈자리는 언제나 부모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며 함께 숨을 쉬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자식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는 부모의 전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 따뜻한 햇살과 유리문에 손도장 찍고 나를 찾아온 '봄'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편의점문을 두드렸던 꼬마 아이는 앞으로 '예쁜 아가씨'가 될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었던 아이는 앞으로는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효녀'가 될 겁니다.

이제 6살인 봄이는 두 번의 생일로 살아가는데 2018년 11월 3일의 첫 번째 생일과 2022년 12월 29일의 두 번째 생일로 살아갑니다. 두 배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봄이에게 쓰는 편지]

봄이에게

봄아! 아줌마를 찾아와서 고맙다. 그동안 병원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친구도 못 사귀고 외출도 못 하고. 엄마 아빠의 깊은 한숨을 알기에 참아내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는 퇴원하고 더 건강해져서 '뽀로로'가 있는 놀이동산에 놀러 가렴. 앞으로 남은 치료 잘 받으면

서 2배로 웃고 2배로 행복하게 살렴. 그리고 네 엄마 아빠의 수고와 땀을 아줌마는 다 보았단다. 나중에 다 빠짐없이 이야기해 줄게. 고맙고 사랑한다.

[내 딸에게 쓰는 편지]

딸아, 내 딸아~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 네가 엄마 곁을 떠난 지도 3년이 넘었는데 너를 잊고 살아야 엄마가 슬픔에 젖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는구나.

딸이 남기고 간 것이 많음을 깨닫는다. 한 꼬마 아이를 만지면서 너를 기억하고 용기 내어 기도하며 용기를 줄 수 있었단다. 내 눈에 너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너는 내 가슴에 함께 숨을 쉬고 살아있단다. 너에게 한 번도 ‘엄마’ 소리를 못 들었지만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고 하늘 나라 보내기까지 행복했음을 고백한다.

엄마는 더 용기 내서 잘살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될 테니 소중한 너의 추억을 그때마다 떠올릴 거야. 엄마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간 딸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소

입선

옹이가 된 3년

애청자

내 나이 쉰둘에 장학재단 콜센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학재 단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데 간단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단 업무는 어렵고 방대했다.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원 구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도 지원 구간 따라 심사하고, 이자 면제 혜택 등도 학자 금 지원 구간 따라 결정되어 차등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 대한 고객님들의 문의 내용도 많고, 질문도 심도 깊었다. 보건 복지부의 공적 자료를 토대로 지원 구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가 알아야 할 부분이 깊고 넓고 많이 알아야 고객 응대가 가능 했다.

젊은 입사 동기들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소리 듣지 않고 고객님들 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업무를 정확히 습득하는 게 우선이

라 생각했다. 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1시간 일찍 회사에 와서 업무 시작 전에 공부하고,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고객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복습하고, 새 업무는 전산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반복하고 메모하며 퇴근 후 2시간을 나머지 공부에 바쳤다. 넓은 사무실에는 적막함이 흐르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무섭기도 했다. 2시간 공부한 후 사무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준 현미란 센터장님께 문단속 철저히 했다고 문자로 보고한 후 피곤한 몸을 전철에 실었다.

업무가 방대해서일까. 신입사원 교육 끝나고 남은 동기는 나 포함 3명뿐이었다. 20대, 30대 몇 분은 업무가 어렵다고 교육 3일째부터 안 나오고, 점심 먹으러 간다던 교육생은 바로 집으로 가고, 교육 마친 40대 초반인 분은 일주일 업무를 한 후 사직서를 썼다. 자리 배치받고 한 달도 안 되어 사직서를 쓴 분도 여럿이었다.

나는 3팀에 배치받았는데 20대 후반 미혼인 여성 팀장님은 고객 질의 건에 대해 질문하면 냉소적으로 마지못해 답해줬고 질문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신입이 업무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당연한데 귀찮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 답변해 줄 때까지 계속 서 있으면 눈을 흘기며 양칼진 목소리로 “그래서 고객에게 뭐라고 말했어요?”라고 쏘아붙이며 화를 냈다. 그런데 다른 경력자들이 물으면 팀장님은 그 사람 자리까지 직접 와서 따사로운 어투로 전산을 다뤄가며 자세히 알려 주곤 했다. 즉 나에게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객의 문의에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지침 책과 상담 매뉴얼이 담긴 두꺼운 책을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한 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해 노트에 정리해 가며 공부하고 퇴근 후 2시

간 이상 남아 공부를 계속했다. 중요한 업무 내용은 손에 들고 다니는 수첩에 적어서 시장 갈 때나 길에서도 외우고 다녔고, 때로는 전철 안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A4 용지에 정리한 자료를 펼쳐놓고 공부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계속 공부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젊은 직원들을 따라가려면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리 배치받고 어리바리한 나에게 팀장님은 미흡한 부분만 들춰내 혼냈고 내가 빨리 그만두기를 바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가죠”라는 말로 퇴사를 압박하곤 했다. 그런 때마다 ‘노력하는 자는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이 어린 팀장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드렸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업무 파트별로 정리한 수첩이 7권이 되었고 업무 분야별로 정리한 노트는 8권이 되었다. 구박해도 내가 그만두지 않자 팀장님은 내가 고객과 통화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녹취해 들으며 잘 못 안내한 것도 아닌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만 들춰내 앙칼진 소리로 “안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라며 큰소리로 면박을 주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를 거듭했다. 그런 팀장님의 감시하에서 나는 잘못 안내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하여 고객님께 응대했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입사 4개월 만에 경력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진행된 프로모션에서 3등을 했다. 입사 6개월째에는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주변 경력자들은 신입사원이 인센티브 받은 것을 불쾌해하고 모여서 나를 험담하는 소리가 내 자리까지 들리기도 했다. 내가 업무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었다. 업무



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 공부했고, 팀장님이 받쳐주지 않으니 당장 고객께 안내를 잘하기 위해 공부했다. 콜센터 특성상 업무를 알아야 고객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고객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콜센터로 전화 걸면 상담원이 연결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고 누르라는 버튼도 많고 기계음으로 들리는 안내 음성도 많다. 또한 어렵게 상담원 연결까지 되어도 제대로 답을 듣지 못하면 고객님들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또 업무를 모으면 나 자신이 불편하고 바로 답을 못하면 고객님의 짜증이 내게 오니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었으니 최소한 업무는 알고 처리해야 월급을 당당히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혼자 나머지 공부를 하다 보니 업무 습득력이 늘고 그로 인해 전화 받는 횟수-콜 수신량도 늘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8개월 만에 인센티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 때 현미란 센터장님은 내 자리를 지나가면서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네요”라고 하셨다.

내가 퇴근 시간 후에 남아서 공부하면 관리자들은 싫어했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 회사 비품이 없어질 수 있다며 팀장님도 반대할 때, 그 센터장님은 “나는 아무개님을 믿습니다. 만약 회사 집기 비품이 도난, 분실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무개님이 혼자 남아 공부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관리자는 자유롭게 퇴근하세요”하며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신 분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분은 혜를 잊을 수 없다.

남자 동기 하나는 ‘누나, 누나’ 하며 사생활 얘기도 하고 자기네 팀 장님이 괴롭힌다면 호소하더니 내가 인센티브를 받은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거나 정수기에 물 받으러 가다가 마주쳐도 하루아침에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상담사들이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와서 휴게실에서 먹는데 하루는 그 남자 동기가 어머니가 불고기를 싸줬다면 휴게실을 한 바퀴 돌며 다 나누어주면서 나만 쪽 빼고 건너뛰고 내 옆자리 상담사에게로 가 나누어주었다. 심지어 그 동기는 “이번에 S등급 명단에 아무개 씨가 있어요~” 하며 나를 비아냥댔고 그 말을 들은 한 경력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야! 죽기 살기로 업무하지 말고 대충대충 해!”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왕따 수준도 높아졌다. 상담사들이 출근하면 감자, 고구마, 떡 등을 싸와 나눠 먹으며 업무 시작 9시 전까

지 수다도 떠는데 한 상담사는 감자 봉지를 들고 내 앞을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강원도에서 온 감자야~”라며 나만 빼고 나눠주었다. 내가 감자를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불고기를 먹고 싶어서도 아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들의 행동이 인간적이지 않았고 어른들이 굳이 저렇게까지 드러내고 동료를 따돌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나는 따돌림을 해결하고자 다가가서 말도 걸고 음료 등을 사서 돌리기도 했다. 7년 차 경력자와 잘 지내려고 빵을 사서 “언니~ 빵 드세요”라고 내밀자 그는 고개를 휙 돌리며 말없이 자리를 뜨기까지 했다.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얘기하다가 내가 가면 얘기를 중단하고 나를 향해 눈을 흘기며 흘어졌다. 복도에서 마주쳐 내가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무시했다.

한 학기가 끝나면 자리 이동이 있는데 상담원들은 팀 이동과 자리 이동을 싫어해서 친한 사람끼리 앉게 배치해 달라고 팀장님께 부탁하기도 한다. 팀장님들은 자리 이동 때마다 나를 항상 이동시켰고 팀 이동까지 시켰다. 센터 내에서 제일 고약하고 무섭다는 1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내가 있던 3팀 팀장님과 새로 가는 1팀 팀장님은 아주 친했고 콜센터에 오래 근무한 관리자들이었다. 3팀 팀장님이 1팀 팀장님에게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는지 이동 후 1팀 팀장님은 3팀 팀장님보다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런 팀장님의 팀원인 나는 업무실수, 잘못 안내하기, 누락, 불친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고객 응대를 했다. 이런 비생산적인 감정 소모는 업무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신경전과 소모성 논쟁으로 지칠 때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고객님의 칭찬은 쓰러진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상담 말미에 “코로나 조심하세요~”라는 고객님들의 따뜻한 말은 지친 내가 위로받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1년이 지나면서 상담은 더 매끄러워졌고 고객님들 칭찬도 종종 들었다. 팀장님은 지적 거리가 생기지 않자 다른 부분으로 나를 공격했다. 한 번은 본부에 보내는 양식을 작성해서 팀장님께 냈는데 내용을 기재하고는 ‘아무개 상담원’이라고 써야 하는데 ‘아무개 담원’으로 적어 ‘상’ 자가 빠지고 말았다. 그러면 팀장님이 ‘상’ 자를 쓰면 될 것을 나를 팀장님 자리로 오라고 하여 세워놓고는 큰소리로 “한글도 몰라요? 한글 안 배웠어요? 담원이 뭐예요?”라며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기세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내가 나머지 공부를 할 때도 다가와서 “아무개님, 퇴근은 바로바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라며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종용하며 계속 지켜 서 있었다. 그때 센터장님이 근처를 지나가시니까 “오늘은 아무개님이랑 같이 퇴근해야지~” 하며 마치 나를 엄청나게 쟁겨주는 것처럼 돌변해서 그 이중적인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내가 퇴사하지 않고 꾱꿋하게 출근하자 팀장님은 부팀장님을 통해 나를 감시하게 했고 부팀장님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부팀장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하니 “어때 대고 말대답이야?”라며 손가락질하며 볼펜을 내 눈을 향해 흔들며 혼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다른 관리자가 와서 “상담석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하시죠”라며 부팀장님을 말리면서 사태가 끝날 정도였다.

그렇게 해도 내가 퇴사하지 않자 1팀장님은 내 남자 동기를 시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했고 그 대가로 동기는 부팀장이 되었다. 나는 다시 2팀으로 옮겨졌는데 공교롭게 2팀 부팀장이 그 남자 동기였다. 그 친구는 나와 동기임에도 공개적으로 나를 왕따시켰고 심지어 먹는 것 가지고도 따돌렸다. 팀비로 차, 커피 등을 비치하는데 팀원이 우영

차를 먹고 싶다고 하니 우엉차를 사놨다며 팀원들 자리로 일일이 다니며 우엉차 마시라고 하면서 내 자리는 건너뛰고 옆자리로 가서 “우엉차 구매해 놨으니 드세요~” 하며 아주 유치하게 차별을 했다.

코로나로 오전 오후 팀원들 체온 체크를 하는데 동기인 그 부팀장님은 나만 빼고 팀원들 체온 체크를 했다.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차별대우하고 망신 주고 나에게 불리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공평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자 나에게 심한 욕까지 했다. 내가 속한 2팀 팀장님은 부팀장의 그 욕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일터의 현실이라는 점이 나를 더 비참하게 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3년 동안 지속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 주고 2차 가해를 하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지만 나는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는 거대한 바위 앞의 달걀, 나만 너덜너덜하게 찢기는 아픔을 더 겪어야 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새로운 담당자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또다시 말하게 했고, 나는 아프고 고통받은 상처를 기억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 얘기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아팠다. 잊고 싶었던 상처와 쓰린 기억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 무시하던 눈빛들이 되살아나 잠을 못 자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는 동안 2년이란 시간이 흘러 회사는 교묘히 빠져나갔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통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죽고 싶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오나 싶어 비관적인 생각만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적인 위치에서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데 우위적 위치란 상담사보다 우위적인 위치인데 나를 괴롭힌 관리자들은 조사받기 전에 개인적인 자유로 퇴사했고, 나를 괴롭히고 욕까지 한 입사 동기 부팀장은 단기 4개월 부팀장직이었다는 이유로 상시적 관리자가 아니라는 그들의 진술을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였다. 약자인 맨 밑바닥 상담원이 억울하게 당한 무자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 폭력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무참하게 한 번 더 나를 짓밟았다. 거대한 힘의 논리에 나는 질 수밖에 없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나는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으로 한강 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넘실대며 나에게로 다가오고 물결 따라 내 마음과 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혼미해졌을 때, 하나 있는 아들 얼굴이 물결 위에 흔들리며 나타났다.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는 모르는 업무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 회사 일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보다도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힘내세요.”

평소에 용기를 주던 아들의 그 말이 귀가에서 윙윙 맴돌았다. 이런 못난 엄마를 자랑스럽다고 믿고 있는 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나 죽으면 혼자 남을 아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외로울까 싶어 정신줄을 다시 붙잡았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엄마로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 후 나는 ‘그래, 다 털어버리고 보란 듯이 살아내자. 이겨내자. 그들 앞에서 내가 업무를 잘 해내면 내가 이기는 것이다!’라는 다짐을 매일 거울 앞에서 하며 출근했다.

3년이 지난 후, 나에게도 후배가 생겼다. 신입분들이 업무가 어렵다고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점심을 사주며 힘을 실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며, 그들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내 개인 시간을 내서 알려주기도 한다. 학원 강사였던 한 신입사원은 공부에 열정이 많아 업무를 배우게 도와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알려줬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1시간인 점심시간 중 30분은 밥 먹고 남은 30분은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휴게시간 35분도 할애하여 질문에 답해주었다.

나를 협박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나를 이유 없이 안 좋게 보고 그들과 함께 합세하여 나를 협박했던 기존 경력자들도 3년이 지나니까 한두 사람씩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지켜본 동료 한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온갖 구박 다 당하면서도 언니는 굳건히 이겨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관련된 관리자들은 모두 퇴사했어요. 언니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하면서 관리자들도 회사도 신경 많이 쓰였을 거고, 진정 제기한 것만으로도 언니는 동료 상담사들에게 큰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모멸감 들 때 많았는데 미움받을까봐 오히려 아부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퇴사하는 일의 반복이었는데 언니 덕에 상담사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줄었어요!”

그렇다.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팀 분위기도 달라지고 직장생활도 달라진다. 항상 공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니 나는 늘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 지금도 나는 새롭게 바뀌는 업무에 대해 계속 공부한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아들의 봄날

방지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년 3월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었던 봄, 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아들의 병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올해 17세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에게 찾아온 ‘거식증’.

아들이 처음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되었던 그해 봄, 내 눈앞에는 174cm, 체지방 5%, 몸무게 47kg의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덩치’하고 키도 컸던 아들은 친구들과 졸업을 할 때부터 ‘살빼기 전쟁’을 시작했다. 친구들은 금방 포기했지만 아들은 달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단을 스스로 짜서 지키고 하고 후에도 운동을 2시간씩 한다. 아들은 먹성이 좋고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식구들이 치킨을 먹을 때도 피자를 먹을 때도 입에 한 조각도 대질 않았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빵, 그 어떤 것도 먹지를 않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시작한 아들. 끼니마다

열량을 제한해서 먹고 운동을 하니 살이 몰라보게 빠졌다.

“아이고, 성형이 따로 없어. 인물이 훤히. 훤히하다고. 아이돌 데뷔해.”

초등학생 6학년 169cm, 70kg이었던 아들은 점점 살이 빠져서 몸 무게 앞자리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잘생겼다고 칭찬했다. 꽉 껴서 못 입었던 청바지가 헐렁해졌다. 67kg, 64kg…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기를 1시간, 스쿼트 300개를 하고 학교에 가는 열네 살의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다.

그 무렵 아들은 모든 음식의 열량을 다 외웠다. 학교 급식에서는 단백질류의 고기만 먹고 나머지는 친구들에게 주기 시작하였다. 하루의 열량을 700kcal로 정한 아이는 중학생이라 하기 무서울 만큼 식단과 운동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던 중에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먹게 되었다. 아들은 촛불만 불고 한사코 안 먹는다고 하였다.

“한 조각은 괜찮아. 네 생일인데 안 먹음 어떡해?”

식구들 성화에 못 이겨서 케이크를 먹은 아들은 너무 맛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두 조각을 금세 해치웠다. 그리고 체중계로 바로 올라가더니 “으악~”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 때문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걸 줘서. 내가 안 먹는다고 했는데…: 금세 1kg이 늘었잖아요.”

“아니야, 살찐 거 아니야. 원래 먹고 바로 몸무게 재면 1kg은 금방 늘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건데 왜 그래?”

아무리 달래도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원망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단식을 시작했다. 힘들게 뺀 살을 다시 1.5kg 찌웠다면서 32시간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 1kg은 금방 빠진다는 것이다. 아들은 문을

잠그고 32시간 금식을 하였다.

“엄마, 32시간 끝났어요. 나 봐요. 다시 턱선이 날렵해졌어. 역시 나는 의지의 한국인.”

비틀대면서 단식을 하고 방에서 나온 아들의 손목은 나보다 더 얇았다. 어느새 아들의 몸무게는 47kg이 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섭식장애-거식증’과 처음으로 만났다. 부랴부랴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 예약하고 전국에 있는 섭식장애 클리닉을 수소문했다.

“애 죽어요. 지금 BMI가 이게 뭐예요? 무슨 생각으로 애를 이렇게 내버려 둘어요? 너 그러다 큰일 나. 입원해야 해.”

아들을 맨 처음 만난 의사는 나와 아들에게 불호령을 쳤다. 아들의 거식증 치료는 매주 한두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였다. 너무 말라서 걸을 힘도 없는 아인데 계속 살이 쪘다고 먹는 것을 거부했다. 간신히 병원에서 만들어준 식단대로 먹여도 아들은 매일 먹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렇게 2020년 아들과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아들과 ‘음식을 매끼 먹여야 하고 공복이 길어지지 않게 간식을 2번씩 줘야 하는 나’와의 싸움으로 채워졌다.

<2020년 12월, 자꾸만 빵을 먹게 된다. 엄마는 병원 선생님이 말한 대로 3끼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준다. 식초를 먹고 레몬을 먹으면 식욕이 좀 덜 생긴다는 데 다 거짓말이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끔찍하다. 괴물 같다. 벌써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먹으면 예전처럼 뚱뚱보 돼지가 될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매일 쓰는 아들의 식단 일기에는 1년 동안 음식을 먹는 자기를 끔찍하게 혐오하는 증오로 가득 찼다. 갓난아기라면 얹지로라도 먹여

볼 텐데 다 큰 녀석에게는 통사정밖에 방법이 없었다. 음식을 거부하는 내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다.

멀쩡하던 애들도 불평불만이 생기고 부모와의 갈등이 생긴다는 중2. 2021년 3월, 중2병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몸무게를 회복했지만 아들은 수시로 '윽'하고 화를 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음식을 지나치게 억제하면서 뇌가 불안해졌다고 하였다. 운동하면 조금 괜찮아진다는 말에 1:1 PT를 끊어주고 트레이너 선생님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트레이너 선생님은 운동하면서 먹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또래 남자아이들이 가지지 못할 인내심이 있었다. 완벽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였다. PT를 다녀오면 기분이 좋지만 다시 음식을 먹으면 '죽어야 해, 나는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내게 그 분노를 고스란히 표출했다.

뚱뚱하게 변한 자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흉을 볼 거 같아면서 결국에는 등교 거부를 하였다. 담임선생님과 매일 통화하고 사방팔방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면서 가까스로 아들의 출석 일수를 맞췄다.

중2병과 불안해진 아들의 뇌, 완벽주의, 우울증, 강박증, 끝없이 추락한 자존감, 살이 찐 돼지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아들의 1년은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채 지나갔다. 아들 방 벽에 주먹을 친 흔적들이 많아질수록 끝없는 자기 학대를 하면서 마음속 모든 응어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아들은 매일 죽겠다고 유서를 쓰고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였다.

“엄마, 나 스위스 좀 보내줘. 스위스에는 안락사 허용해. 엄마도 이런 나 보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아니라고 수천 번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참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고 '거식증'에 걸린 원인과 해결책도 안다고 하는 아들이 내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자기혐오, 살찐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불안감,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아들과 나는 2021년 매일 싸웠다. 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눈물과 한숨,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과 원망으로 채워졌다.

그런데도 나는 아들이 정말로 죽을까 봐 겁이 났다. 내게 소리치고 화내는 아들이 너무 막다 가도 혹시나 ‘나쁜 맘’ 먹을까 봐 무서웠다. 먹고 나서 올다 지쳐 잠든 아들을 확인하고 아들 방 앞에서 몰래 쪽잠을 자면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022년 3월, 유난히 힘들고 길었던 겨울방학을 마치고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어느덧 몸무게가 73kg까지 회복이 되었다. 매일 운동을 하고 PT를 받았기 때문에 딱 벌어진 어깨, 단단한 근육, 누가 봐도 거식증을 앓고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이 막 살을 뺀다고 해서 내가 운동 가르쳐준다고 했어. 이따 우리 집 와도 되죠?”

아들은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 친구들이 자기처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된다며 ‘다이어트 운동 교실’을 열었다. 먹는 것은 예전처럼 잘 먹는다. 어찌 보면 일상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 평온함.

하지만 아들과 나는 어김없이 주말이면 병원에 간다. 아들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약을 먹게 되었다. 내게도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리고 아들은 먹는 음식을 그대로 토하기 시작하였다. 아들은 무섭게 토했다. 한 번 토하는 방법을 알게 된 아들은 ‘먹고 토해야지’라고 미리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다. 토하기 쉬운 면 국물 음식을 일부러 찾는다. 부드러운 음식들은 먹고 바로 토할 수 있어서 아들이 좋아한다. 달콤한 케이크, 초콜릿도 아들의 단골 메뉴이다. 누군가는 손가락을 넣어서 토한다고 하는데 아들은 그냥 무의식 속에서 토한다. 섭식장애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놀랬다.

“이 녀석은 얼마나 자신을 통제하고 완벽해지려는지, 완벽주의가

너무 세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어른보다 무섭게 하더니 토하는 것도 그려네. 허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의사에게 냅다 욕을 하고 싶었다.

‘어찌라고요? 내 아들 고쳐 달라고요.’

이상하게 병원에 가서 말을 하다 보면 한 시간 동안 나는 평평 울음을 쏟아낸다. 참았던 눈물인지 버티고 버텼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건지 모르겠다. ‘괜찮아. 남들보다 좀 다른 성장통을 겪는 것뿐야. 곧 좋아질 거야’라고 위로를 하지만 2022년 나의 하루는 점점 더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종합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아들은 매일 운동을 하였다. 거식증을 겪었을 때 잘 못 먹으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니 아들의 몸은 엉망이었다. 조금만 해도 파열, 물리치료 받고 다시 운동 후 골절, 크고 작은 수술 뒤 퇴원, 며칠 쉬다가 다시 운동. 쉬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아들은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운동의 강도가 심해질 수록 아들은 자꾸 다치고 다친 아들은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다. 폭식하고 구토를 한다. 구토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들에게 탈출구는 격렬한 운동이다. 다시 악순환이다. 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 먹을수록 아들의 토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어느새 거실 화장실은 아들 전용이 되었다. 화장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토한 뒤 ‘비릿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잘 안 돼요. 안 토하려고 하는데 토하지 않으면 살이 찌니까요.”

나는 아들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면서

나를 엄청나게 미워해야 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슬리퍼를 찍찍 끌면서 빼딱하게 학교에 가더라도 좋으니 그냥 남들과 똑같아졌으면 남들처럼 편안해졌으면 하고 매일 기도했다.

아들은 여전히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분노와 자신을 혐오하는 사춘기는 절정으로 향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새 담임선생님과 또다시 매일 전화를 하였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담임선생님, 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휴학한다, 자퇴한다’라는 아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내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최소한의 출석 일수만 맞췄다.

그 노력 끝에 나는 결국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에 갈 수 있었다. 교실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머쓱하게 웃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친구들과 어색하지만 함께 사진을 찍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의 소중한 아가, 얼마나 힘드니. 네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조금만 더 버텨줄래?’

장난기 넘치고 엉뚱한 생각도 잘하는 아이, 책 읽기 좋아하고 남자 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표현력이 좋은 아이, 초등학교 내내 임원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리더십 있었던 아이, 그 아이는 내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대신 소리치고 화내고 욕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아이가 내 앞에 있다. 낯설고 두려웠다. “엄마,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아이, 아이의 말은 칼이 되어서 내 심장을 후벼 판다.

아들의 중학교 3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있

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상담받는 것, 아들과 함께 약을 열심히 먹는 것, 거식증, 폭식증 관련한 책을 삶살이 읽는 것. 하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아들은 매일 힘들어했고 우리는 매 순간 싸웠다.

아들의 몸무게가 돌아오고 먹는 것도 일상적으로 되었지만 토하는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어릴 적의 섭식장애에는 치료가 빠르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누군가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의사의 진단, 절망적이었다.

자신만의 수치심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들의 마음의 병. 아들의 약도 바뀌고 내 약의 종류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2023년 3월 봄을 맞이했다. 3년 동안 우리는 세 번의 봄을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나름 버티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엄마, 오늘은 2번만 토했어요. 나도 내 몸 망가지는 거 싫으니까 줄여 볼게요.”

“오! 진짜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디야!”

거식증과 폭식증 사이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확답이 없는 아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매일 우는 아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다 엄마가 제대로 못 해서라는 자책감.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나아진 게 없다.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안 먹던 아이가 나랑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려 다닌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포자기 하였던 아이. 그 아이에게 ‘종합격투기선수’라는 목표가 생겼다. 엉망이 되어 버린 성적이지만 학교,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매일 그랬잖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서 살라고. 나한테는 운동이 그거라고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당하게 밝히는 아이,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남에게 손을 내미는 아이. 내 아이는 그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따뜻하고 착한 아들. 그 여린 마음이 오히려 병으로 온 순수한 열일곱 살의 소년이다.

아들은 이제 토를 하고 스스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온다. ‘토하지 않기 100일 도전에 성공하면 원하는 소원 들어 달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토하는 횟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면서 아들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한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 또래 고등학생들처럼 고민도 하고 엉망이 된 성적에 한숨도 쉰다. 바らく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들기도 한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들의 열일곱 삶이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게 지나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아들의 봄은 안 왔다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늦게 오는 만큼 온갖 꽃들이 피면서 축하를 할 것 같다. 이 시간이 지나면 봄날의 우리 아들은 꽃비 맞으면서 활짝 웃을 것이다.

너의 또 다른 3년을 기다려본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소

입선

하늘에서 보낸 그 아이의 문자

송혜정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언 니!”

만난 장소가 길이였다면 어쩌면 언니를 모른 척했을 것이다. 그것이 언니를 배려하는 길이라 생각했었다.

“네?”

“언니, 나 진아 엄마!”

당황하던 언니는 내 말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 맞네! 화장도 하고 밖에서 보니까 못 알아보겠다. 그동안 잘 지냈지? 정말 너무 반갑다. 그리고 진아… 진아는 잘 있지?”

긴장했던 나는 언니의 반가운 인사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 진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진아의 안부에 잠시 뜸 들었던 언니는 내 대답에 안도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벌써? 정말 많이 컸네. 진아 너무너무 잘됐다.”

내가 상상했던 언니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러고는 활짝 웃어주는 언니의 말에 그 아이가 생각나 울컥 눈물이 차 올랐다.

“내가 왜 아래. 언니 미안!”

“나 이제 괜찮아.”

언니는 오히려 내 등을 토닥여주었다. 그렇게 국비 지원 재취업 과정 학원에서 언니는 나의 수강생이 되었다.

언니와 그 아이와 만남은 2016년 봄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새 학년을 앞두고 진아는 목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진아와 나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병실 커튼을 닫은 채 틀어박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커튼을 조심스레 걷고 누군가 커피를 내밀었다. 언니였다.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요. 엄마가 먼저 정신 차려야죠.”

평소에도 엄마들과 어울려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 생각해 거리 두며 살았었다. 그런데 우리 병실은 물론이고 다른 병실 보호자까지 아침이면 우르르 몰려와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린이 병원 혈액종양학과 병동이면 대부분 암 환자였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지못해 커피를 받았지만 열린 커튼을 다시 치고 말았다. 하지만 언니는 나의 불편한 심기에도 아침마다 커피 한잔과 함께 내 커튼을 열어젖혔다. 나는 점점 더 언니의 간섭이 버겁고 짜증 나 참기 어려워졌다.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급기야 나는 병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았다. 백혈병 진단

받자마자 그날 저녁 항암이 시작되고 진아는 큰 충격에 말문을 닫아버렸다. 진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도 한순간에 벌어진 불행에 패닉 상태였다. 언니의 선한 행동을 알면서도 불편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커튼이 열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나타나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훈이에요. 엄마가 이거 작성해서 병원 학교에 갖다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등 돌려 모로 누워 있는 진아를 보며 말을 이었다.

“네가 진아니? 병원 학교에 와 재밌어!”

분명 환자복 입은 암 투병하는 아인데 표정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 들고 학교라는 소리에 입을 다물었던 진아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병원에 학교 있어?”

“응 병실 끝에 있더라.”

복도 끝에 있는 병원 학교 기억이 떠올랐지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진아는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병원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진아보다 두 살 많은 훈이는 진아를 살뜰히 챙겼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통했는지 진아도 병원 학교 다니고 같이 투병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눈에 띄게 밝아졌다. 점차 밝아지는 진아와 아프지만 웃고 떠들며 천진난만한 병실 아이들을 보며 나도 차츰 정신을 차려갔다. 어른들은 자기 몸이 아프면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물론 항암 주사 맞는 날은 울고불고 여기저기 앓는 소리도 들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

냐는 듯 다시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진아에게 왜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생각하면 체한 듯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날 밤 나는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자는 진아를 두고 병동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왜 하필 진아인 거야?”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평 터져버렸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휴지를 건네며 언니가 나타났다.

“진아 엄마 많이 힘들죠?”

언니의 위로의 말에 나는 마음 속 응어리졌던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왜 진아에게 이런 몹쓸 병이 왜 생겼을까요? 유전도 아니라 하고 딱히 잘못 먹인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진아가 아픈 걸까요?”

“진아 엄마 탓 아니에요.”

“분명히 아픈 이유가 있을 텐데 상세 불명이라니…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나는 그동안 속으로 품었던 말들을 속사포로 쏟아냈다. 언니는 그저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귀담아들어 주고 등을 토닥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쏟아낸 말만큼 마음의 응어리는 점차 풀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아이보다 엄마가 더 큰 문제인 거 알아요? 아이들은 금방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강해요.”

언니 말에 병원 오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아직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나와 달리 진아는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밝고 즐겁게 병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훈이 덕분이었다.

진아가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험담을 얘기해주며 위로했다. 면역력 수치가 낮아 병원 학교를 못 가는 날에도 여러 만들기 재료를 챙겨와 무료한 시간을 진아와 놀아주며 무척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엄마, 훈이 오빠 진짜 착하다.”

내가 보기도 훈이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착하고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다. 훈이 뿐만이 아니었다. 투병하는 아이들은 모두 천사였다. 힘든 보호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친구들과 공감하고 서로 아끼고 챙겨주었다. 솔직히 진아가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다. 어느새 나도 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진아가 낫는다는 희망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이면 병실 한구석에 모여 엄마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는 나를 발견했다. 그동안 나는 왜 이런 재미난 일을 시간 낭비라며 외면했는지 후회했다.

어느덧 3개월의 기나긴 집중 치료가 마무리되어 갔다. 병원 학교가 무척 좋았던 진아는 퇴원을 아쉬워하기까지 했다. 아직 2년 6개월이란 긴 투병 기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집중 치료라는 제일 큰 산을 무사히 넘은 것이다.

하지만 궁정의 아이콘인 훈이는 아직이었다. 훈이는 7살 때 골육종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완치라는 기쁨이 허망하게 골수백혈병이란 병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곧 무균실에서 골수 이식을 위해 최고 강도의 항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부진 훈이가 잘 이겨내리라 생각했다. 그 후 외래 오면 가끔 훈이를 면회했는데 어느 날 훈이는 퇴원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진아가 훈이 오빠와 연락이 안 된다는 말할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훈이가 서울 큰 병원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방 병

원에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갔다는 말은 보호자들이 아이들 모르게 쉬쉬하며 하늘나라로 갔다는 은어의 일종이었다. 나는 정말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니에게 연락했지만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입원 생활을 같이했던 엄마에게 훈이가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소식에 나도 한동안 훈이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아가 뜻밖의 말을 건넸다.

“엄마, 훈이 오빠 골수 이식 잘 끝나고 서울로 이사하고 이제 일반 학교 복귀했다.”

“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훈이 전화로 보낸 카톡을 보고 언니가 답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아는 한동안 그렇게 훈이인 줄 알고 언니와 톡을 주고받았다.

“엄마, 그리고 훈이 오빠가 치료 종결하면 그때 연락하래. 선물 보내준다고.”

그리고 어느덧 연말이 되고 병원 학교에서 주관하는 송년회가 열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쓴 백일장 글이 다음 해 달력으로 만들어졌다.

“엄마, 훈이 오빠 글이 대상이래. 오빠한테 연락해 줘야겠다.”

“아니야. 오빠도 알고 있어.”

“엄마가 어떻게 알아?”

“훈이 오빠 엄마랑 통화했어.”

진아는 최우수상인 자신의 글을 보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대상인 훈이의 이름 앞에 쓰인 한자 故(고)라는 글자가 먼저 보였다. 그 글자가 마음에 박히며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이런데 언니 마음은 얼마나 더 많이 아프고 찢어질까? 그 생각에 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더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진아를 위해 카톡을 해 준 언니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아파왔다.

진아가 훈이의 죽음을 알게 된 건 초등에서 중등 병원 학교로 옮기고 나서였다.

“엄마, 혜림 언니가 그러는데 훈이 오빠 하늘나라 갔대.”

서울에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한 진아는 큰 충격을 받았다. 힘들 때 처음 위로가 되어준 훈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죽음보다 특별하게 다가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진아는 그동안 친구들의 투병과 죽음을 지켜보며 겸허히 삶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기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아이가 투병할 때는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더니 언제 세월이 흘렀는지 진아가 특수교육 대상자 딱지를 떼고 일반 학교의 고등학생이 되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진아에게 매달렸던 나는 기쁨도 잠시 허탈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운 좋게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했던 경력으로 국비 지원 재취업 과정 학원에 디자인 강사로 취업하고 운명처럼 언니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렇게 학원에서 언니를 매일 만나게 되었다. 언니는 진아 치료 종결 이후 생활을 궁금해했다. 나는 진아가 아파서 응석받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도 넓어지고 삶에 긍정적으로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훈이도 아프고 더 의젓해지더라. 자기 아픈 거보다 엄마 슬플까 봐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사실 더 아까워!”

훈이 이름을 처음 언급하고 언니는 꾹꾹 참아내려 애썼지만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 뜻은 겪어 보지 않고는 잘 모를 감정일 것이다. 나는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언니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지만 이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언니 나는 훈이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 진아에게 훈이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나도 언니 때문에 그 시간 잘 견딜 수 있었어.”

삶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던 훈이와 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는 전할 길이 없었다. 학원 마지막 수료식이 있던 날 나는 언니에게 연락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내내 망설였던 훈이가 대상으로 뽑힌 글이 인쇄된 달력을 건네주었다. 언니는 그 달력을 보자 표정이 굳은 채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 말을 꺼냈다.

“병원 학교 선생님이 전화해서 상장이랑 선물 보내준다는데 내가 거절했어.”

“언니도 알고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 말에 당황해 안절부절 말 못 하는 나를 보고 갑자기 언니는 웃어 보였다.

“그래서 아쉬웠다고. 받아들 걸 후회했어. 고마워!”

그렇게 언니와 마지막으로 아쉬운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일 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언니에게 카톡이 왔다.

<나이 많아서 취업이 안 되더니 이번에 작은 기획실에 취업했어.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할게. 많이 도와줘!>

진아에게 하늘에서 보낸 그 아이의 문자처럼 나도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살아갈 희망이 되고 싶다는 작은 바람으로 오늘도 언니의 연락을 기다린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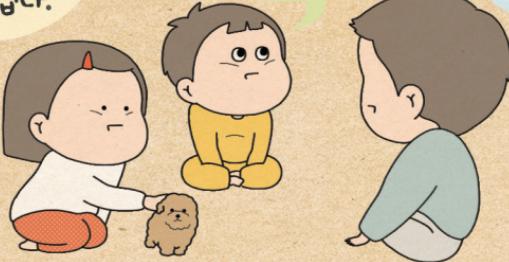
신춘편지소 장려상
박상범(충남 천안시)님의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빠 뭐야?
너무 못생겼어
근데 귀엽다.

너무 작아서
못 만지겠어요.

귀엽지?



당신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상의도 없이
강아지를 데려와.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쭈글



아내의 말이 백번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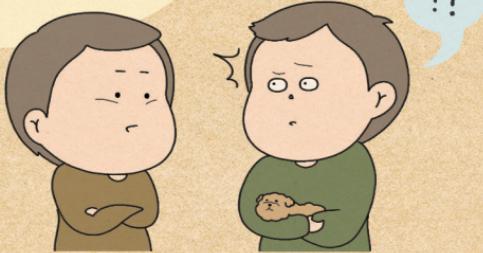
상의 한 마디 없이 멋대로 강아지를 입양한 저는
혼나 마땅하지요.

후배의 친구가 운영한다기에
놀러 간 애견숍에서 만난 녀석



작은 케이지에서
꼬리가 떨어져라 흔드는 털뭉치를 봐도
그저 신기하고 귀여울 뿐
입양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파양된 녀석이에요
이농 몽값도 높은 녀석인데
분양 안 되면 도태되겠지요.



도태라는 말에 결국 나는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분노한 아내에게 유난당한 저와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녀석에게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우리 바람과는 달리
우리 가족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칠색 팔색 하던 아내는
산이를 안고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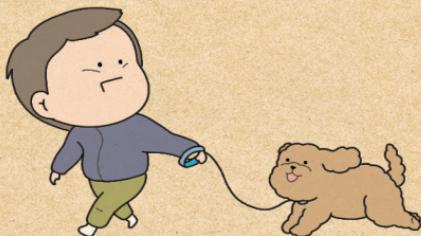
아가 다음 생에는
형아처럼 엄마 아들로 태어나령
그럼 엄마가 건강하게 키워서
대학교도 보내줄게.



우리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산이는 어느덧
건강한 세 살 강아지가 되었답니다.



명견 산이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자랑

그날 밤 산이를 선택한 건 저이지만
어쩌면 산이가 저를 선택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경석이가 또
무모한 도전을 하려 합니다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경석 씨,어서 와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누님. 저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 놓으세요.”

“내가 댁을 언제 봤다고 말을 놓아요?”

내가 여성시대의 새 식구가 되었던 8년 전, 짹꿍 양희은 누님과 나 눈 첫 대화다.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사이이지만 (지금도 나만의 착각이면 어쩌지ㅋㅋ),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는 그리 훈훈하지 않았다. 사실 누님의 말이 옳다. 오며 가며 인사드린 적은 있지만 프로그램을 같이한 적도 없었고, TV 활동을 주로 하던 내가 라디오를 잠깐 하다 떠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이다. 누님의 냉철한 한 마디에 당황하거나 충격 받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나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의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다.

- 첫 방송 후 두어 달쯤 되었을 때, 생방송 끝나자마자 누님이 내게 말을 건넸다. “경석야! 점심 먹으러 가자.”

- 사연이 너무 슬퍼서 참고 읽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님이 이어서 사연을 소개했고, 노래가 나갈 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후로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별명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올보 디제이.

- 아버지가 하늘로 긴 여행을 떠나셨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 죄송함, 그리움, 믿어지지 않음… 여러 생각으로 많이 힘들었다. 여성시대 식구들과 당당이 여러분의 격려가 너무도 큰 위안이 되었다.

- 최강동안 희은 누님의 칠순이 다가왔다. 잔치를 열어드려야 마땅한데 그려진 못했다. 좋은 선물이라도 해 드리고 싶었다. 고민 끝에 종로의 금은방에 갔다. 금 거북이를 샀고, 옆에 우스개 편지도 넣었다.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녹여서 쓰세요, 누님!” 평소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누님이 깔깔 웃으며 좋아하셔서 나도 기뻤다.

-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국 건물 지하에 짬뽕집을 열게 되었다. 여성시대 식구들이 참 많이 와주셨다. 음식도 맛있고 장사도 잘되는 듯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두었다. 내가 할 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유튜브 채널 서경석TV를 시작했다. 여성시대 청취자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셨다. 덕분에 실버버튼을 받았고 지금도 운영 중이다.

- 나는 운동을 참 좋아한다. 축구, 골프, 수영. 운동만큼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 먹기도 좋아한다. 중년이 되면서 스르르 불어난 체중.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다. 큰맘 먹고 노력해서 20kg을 감량했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주가 되었던 2년여간 틈틈이 공부에 매달린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득했다. 여성시대 식구들과 당당이 여러분이 내 일처럼 축하해 주셨다.

지난 8년간, 여성시대는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앞으로 이어질 내 인생의 중·후반도 여성시대와 함께 가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갔다. 더 늦기 전에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몸에 배어버린 규칙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친구와 늦은 시각까지 술잔 기울이며 인생 논하기, 4박 5일짜리 여행 프로그램 출연, 대전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하루 종일 같이 있기, 한국사 일타강사 도전….

남자도 중년이 되면 만사에 의욕이 사라지고, 몸이 벅들거리처럼 축처지는 갱년기가 온다는데 나완 거리가 먼 듯하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일에 부딪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물론 걱정도 되었다. 특히 지난 8년간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스승, 친구 그리고 베풀목이 되어주었던 여성시대와의 이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걱정.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별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일오비의 노래 가사처럼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닐 거라고. 나중에 여성시대가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욱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당당이님들, 많이 부족한 제가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무모한 꿈을 꿀 수 있는 배짱을 지니게 된 것도 다 여성시대 덕분입니다.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가르침 마음에 잘 새겨놓았습니다. 열심히 한번해 볼게요. 응원해 주셔요.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성시대와 함께할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들 맘껏 한번 해볼게요. 잘해서 비단옷 입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차별화된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업계를 평정하다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거래고객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태강기업은 특장차 제조·판매 기업이다.

전기공사용·절연고소작업차와 전기노면청소차와 같은 특장차 및 유압크레인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전 공정 자체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장인정신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정성과 흔을 담아 제작하고 있는 태강기업을 만나본다.

태강기업은 특장차 제조·판매 전문 기업이다. 오거크레인을 주력으로 하여 소형 크레인 및 전기공사용 절연 고소작업차를 제조하여 판매 한다.

“제가 특장차 회사에서 20여 년 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07년 태강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필요 한 부품을 주문받아 제작해서 납품

하다가 2013년 태강기업 브랜드의 오거크레인을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후발 주자에 가까운 태강기업은 오거크레인을 제작해 판매한 지 2년 만에 업계에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했다.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던 오거크레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했기 때문이다. 오거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지반을 굴착하거나 흙



막이 공사, 지하 터파기 등 기초 공사에 이용되는데 더 깊고 더 멀리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 직접 오거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안정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현재 태강기업의 오거크레인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85%가 넘는다.

“오거크레인을 설계할 때 현장에 찾아가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기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존 오거크레인의 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현장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죠. 그것을 바탕으로 오거크레인을 설계했고 반신반의하던 현장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인 결과 첫날 그 자리에서 15 대를 계약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타 업체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면 태강기업은 고객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설계해서 만든 것이 주요했다. 이는 임향택 대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강기업의 주요 연구원들 또한 이쪽 분야에서 2~30년 근무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도면 하나만 봐도 각자의 노하우가 발휘되어 신속 정확하게 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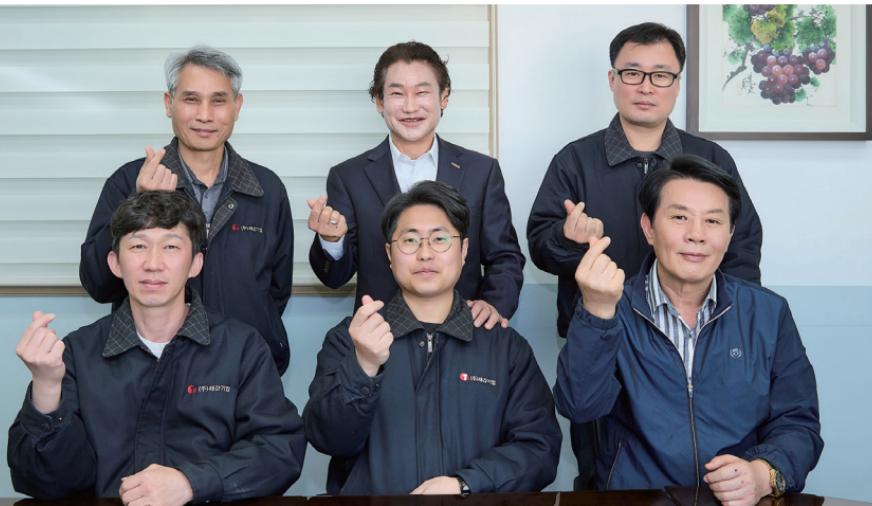
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태강기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쟁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혼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혼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것이 태강기업의 기업 철학입니다.”

오거크레인 시장을 평정한 태강기업은 이제 전기 절연 고소차를 주력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미 작년에 개발을 마쳤고 올해 6월 120여 대의 전기 절연 고소차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올해 소형크레인을 탑재한 다양한 보수·정비 차량 등 몇 가지 아이템이 더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0억이던 매출을 올해 350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이철우 지점장은 “설립 초기부터 IBK기업은행과 함께해 온 태강기업은 탄



탄한 기술력으로 특장차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칭찬하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고 연구·개발하는 혁신적인 회사”라고 믿음을 나타냈다. 더불어 “최근 인력 확충과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태

강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서포트할 것”을 약속했다.

기술 장인의 정신으로 최상의 품질만을 생산하는 태강기업의 도약을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이철우 지점장(왼쪽)과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

❶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한 우물만 파라.
2. 훈과 정성을 담아 제품을 만들어라.
3.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주)태강기업

대 표 임형택

전 화 043-262-5354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도원로 198-12

홈페이지 <http://www.taekang.net>



판촉물 업계 넘버원을 꿈꾸다

IBK기업은행 반월유통단지지점 거래고객

(주)기프트원 원용길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기프트원은 30년 전통의 판촉물 제조업체다. 특히 국내 최고의 PP부채, 캘린더 전문업체로 다양한 디자인을 자체 개발하여 제조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되 항상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프트원은 광고·판촉용품 제조업체다. 1980년대 초 영세 업체로 시작해 2009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판촉물 기획부터 디자인, 제조, 가공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부채와 캘린더가 기프트원의 주력 상품이다.

“다이어리, 노트, 수첩, PP화일, 리갈패드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는데 부채와 캘린더가 저희 기프트원

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는 상품입니다. 여름에는 각종 판촉용 부채가 많이 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캘린더 제작에 들어갑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각종 판촉물 부채 중 대부분이 기프트원에서 처음 개발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형이나 사각 같은 기본적인 모양부터 각종 동물 모양이나 사물 모양, 캐릭터를 본뜬 부채 등 자유로운 모양의 부채들, 특히



다양하고 특이한 부채 손잡이도 기프트원에서 개발한 디자인이 대부분이다.

거의 종이로 제작되던 판촉물 부채를 PP 재질로 만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기프트원이었다. 종이보다 견고해 더욱 실용적일뿐 아니라 종이로 부채를 만들 경우 부챗살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부챗살을 단순화할 수 있어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캘린더에 회전 거울을 부착하고, 모니터에 붙여 사용하는 모니터 메모 보드를 개발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디자인 의장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고, 실용신안특허도 10가지 정도 등록되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이용이 늘면서 ‘숨이원’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여 각종 기업이나 행사를 위한 마스크 제품도 제작·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기프트원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 이후 매년 10%씩 꾸준히 매출이 늘어 2022년에는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직접방문하며 영업 했고 후불 결제가 빈번했던 시절에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판촉물 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매년 꾸준히 올랐던 매출이 20% 이상 곤두박질쳤다. 각종 행사나 축제가 중단되면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게 되었고, 판촉물을 많이 만들던 학원이나 기업

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판촉물 업계도 덩달아 침체되었다. 그나마 30여 년의 전통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프트원은 타격이 적은 편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여파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다시 주문량이 늘고 있다.

“아직 회사 규모가 영세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사세를 늘려 200억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업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반월유통단지지점 임광묵 지점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프트원이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며

“제조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프트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한길을 걸어온 기프트원이 판촉물 업계의 넘버 원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IBK기업은행 반월유통단지지점 임광묵 지점장(왼쪽)과 (주)기프트원 원용길 대표

❗ (주)기프트원 원용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전통은 지키되 트렌드를 놓치지 말라.
2.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라.
3.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하라.

(주)기프트원

대 표 원용길
전 화 031-491-1182

주 소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302번길 27-1
홈페이지 <https://www.gift-one.kr>

여성시대 월화수목금토일

라디오 주치의

몸이 건강하면 마음까지 건강해
진다고 하죠. 몸과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여성시대 앞으로 보내주세요.

열린 수요일

여성시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소한
육아 고민과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방에 올려주시면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 서천석 선생님과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성살롱

매달 특별한 분과 함께 과학, 문화,
우주, 역사, 음악, 미술, 철학, 경제···
알아둘수록 유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월

사랑탐구생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를 여성시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화요일 아침, 웃기는 부부!
권재관 김경아 씨와 함께 탐구해 드립니다. ♡

수

장용의 단결필승총성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군대 시절!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개그맨 장용 씨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를 이웃으로 모시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헤쳐
나갑니다.

일



여성시대

인터넷 주소 www.imbc.com

주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IBK기업은행

쉬운 경영은 없지만 쉬운 뱅킹은 있습니다



기업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일기에
6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기업용의 길을 걸어갑니다

IBK기업뱅킹



고객별 맞춤으로 **쉽게!**

자산관리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로 맞춰 편리한 이용



비대면으로 **빠르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 외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카드 발급까지 가능



자금통제로 **안전하게!**

다단계 결재, 다양하고 편리한 결재라인
아간/주말 이용시간을 안전하게 제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651호(2023.02.13) [유효기간 : 2024.02.12]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IBK 기업은행

이 세상에 작은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기술이든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